

#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우리문화 · 2002년 7월호(통권162호) · 등록번호: 마-02746(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7**  
ISSN 1599-4236

# 우리 문화

2002 · 7

2002년 7월호(제16권 4호 통권 162호)  
 등록 / 마 02746(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02-704-2311~3  
 FAX / 02-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이수홍  
 사무총장 / 하만기  
 기획편집 / 컬처플러스(02-2264-9028)  
 인쇄제작 / 크리홍보(주)(02-737-5377)  
 발행일 / 2002년 7월 1일  
 정가 / 3,000원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무래기들  
 살살 그물 들어 올리면  
 하늘은 더욱 푸르고  
 뭉게구름 한 두점  
 키가 커 간다.

##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30 ◆ 서울의 명소 · 서울역사박물관 등



## 46 ◆ 민속 · 웅상농청장원놀이



## 17 ◆ 고향이 좋다 · '이천'



## 52 ◆ 대중문화 · 취화선



- 2 ◆ 날줄씨줄 · 지방문화의 살길 김형국
- 4 ◆ 특별기고 · 탄생 1백주년을 맞은 문인들 오승훈
- 8 ◆ 우리문화논단 · 사물에서 배우는 의미 정민
- 12 ◆ 제언 · 문화환경가꾸기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편집부
- 16 ◆ 시한편 · 저녁 산책 연규자
- 17 ◆ 고향이 좋다 · 도자기 고장 '이천' 강민철
- 24 ◆ 축제 · 전통소금 '자염(煮鹽)' 을 아십니까? 김정호
- 28 ◆ 사람과 문화 · 2002 월드컵 성공기원 '마포 월드컵 응원 축제' 편집부
- 30 ◆ 서울의 새로운 명소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편집부
- 32 ◆ 금강산기행 · 금강산에서 금강초롱을 만났다. 김중우
- 34 ◆ 금강산기행 · '아버지의 고향' 으로 김진미
- 36 ◆ 문화인물 · 조지훈(6월), 성삼문(7월) 편집부
- 38 ◆ 문화관광부 ·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제9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편집부
- 40 ◆ 2002 지역문화행진 ·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의 방향' 토론회 편집부
- 44 ◆ 세시풍속 · 바캉스 떠나는 '유두' 와 개고기 먹는 '삼복' 편집부
- 46 ◆ 민속 · '웅상농청장원놀이' 김영도
- 52 ◆ 대중문화 · 취화선 강민철
- 54 ◆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축제의 의미에 담긴 주민과 교육 편집부
- 58 ◆ 전국문화원뉴스 · '제4회 연변 조선족 전통 음악제' 등 편집부
- 68 ◆ 오픈북 · 조선 왕궁의 궁궐문 및 성문 편집부
- 74 ◆ 신간안내 · '의령문화' 등 편집부
-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 지방문화의 살길



김형국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문화담당 과장이 수석과장이 되고 있다” 지난 봄, 문화적 지방발전책을 논의 하던 문화관광부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인사가 털어놓던 말이다. ‘21세 기는 문화의 세기’라며 목청을 높이지만, 고작 문화산업이 첨단산업이란 주장에 그칠 뿐 유서 깊은 지방문화의 발굴·보존·전승에 무관심하지 않나, 내심 기우 를 숨기지 못하던 터에 모처럼 신선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내실은 어떠한가 문화 또는 예술은 고작 경제성장을 증거해주는 꽃에 지나 지 않는다고 여겼던 경제성장시대의 정부쪽 문화관에 견주면 일대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그 시절, 각급 지방정부의 ‘영리한’ 관료들은 문화담당관 자리를 기피 했다.

자칭해서 그 자리에 앉은 관료는 유적지 주변에 흩어진 ‘그 하잘것없는’ 고와 (古瓦) 조각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다니는 ‘똥구름’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지방 문화원의 관계 인사들 역시 ‘영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기는 매한가지였 다. 그러나 선지식(善知識)이 말하지 않았던가. “영리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세상을 변혁 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그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세계화의 파고가 높아지자 사정은 반전한다. 거센 파고를 이겨내자면 우리고 유의 문화 또는 지방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다. 지방문화원도 더 이상 구색으로 갖춘 존재가 아니며, 관련자들도 자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한다.

위상에 대한 재평가는 지방문화원에게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기도 하다. 때문에 지방문화원이 지금까지 역점을 두던 관심영역이 세계화시대 에도 적실(適實)한지 따져볼 일이다. 혹시 관심이 지나치게 ‘문예지향적’이었다 면, 한번 성찰해볼지하다.

문예지향은 문화를 고급문화 위주로 바라보는 발상법이다. 감동을 안겨다 준 다는 고급문화가 삶의 소금이 되고도 남지만, 재미 또는 흥미를 제공하는 대중문 화 역시 문화의 영역이다. 보통사람의 삶에 윤희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 방의 향토축제도 한 형태인 대중문화는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대중문화도 그렇지만 생활문화도 문화의 영역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세간에서 ‘교통문화’란 말을 쓰면 일각에서 “교통도 문화냐”고 시큰둥이다. 하지만 무질서 투성이거나 아니라 원만하고 조화롭고 여유 있는 교통질서가 확보된다면 이를 일컬어 ‘교통문화’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선진국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거기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의 여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이 일상화된 곳이다. ‘맞아 죽을 각오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질타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한 일본 상사원이 한국의 선진국 발돋움 열망은 첨단 공산품 생산능력에 더해 교통질서, 행락(行樂)질서 등에서 법규를 제대로 지킴은 물론 그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양보하는 삶의 격(格)을 높여야만 가능한 일임을 따끔하게 상기시켜준 바 있다.

삶의 기본은 의식주다. 여기에 ‘행(行)·육(育)·낙(樂)’을 더하곤 하는데, 행은 교통, 육은 교육, 낙은 위락 또는 여가생활을 뜻한다. 여섯 가지 가운데, 특히 지방색이 생생하게 묻어나는 부문은 식·주·행·낙이다.

행락이 앞서 지적처럼 문화이듯이, 식사를 ‘대화의 수단’이라 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A. Sen)의 지적 그리고 우리 전통인 음복(飮福)의식이 음식도 바로 문화의 한 정형임을 증거한다. 주기가 격조 있는 생활문화가 되고 있는 세계적 보기는 일본의 전통여관이다. 한옥 또한 그에 못지 않은 평가를 받을 만한 데도 보존에 소홀해서 전통주거문화를 현대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이 이 시대의 우리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문화원이 향토축제나 문예지향적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뜻 눈에 띄지 않는 지방적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정리하고 홍보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 고장의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생명의지는 그 자체로 정당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아름다운 법. “마을이 어지니 아름답도다(里仁爲美)”라 했던 공자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생활문화의 평가와 현장을 지방문화원의 역점사업 하나로 삼자면 지방의 각계 사람들, 이를테면 관청,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뜻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도 주고받고 뜻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비공식적 장치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화란 이름으로 지구가 한 마을이 되고 있는 요즘은 바야흐로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시대인지라 정부쪽이나 몇몇 유지들이 앞장서던 이전의 방식으로는 어렵도 없다. 대안(代案)은 민관(民官)의 각계가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길이다. 장소판촉론(place-marketing)이란 지방발전의 최신이론에 따르면 이런 자발적 연대를 일컬어 ‘관계자산(關係資産)’이라 한다. 이는 조직적인 제도자산(制度資産)과 대조되는 바, 이를테면 옆집에 불이 난 경우 비상연락망이나 동장(洞長)이 방송을 해서 불을 끄러 가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제도자산에 의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고 이웃이기에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비공식적 관계자산 덕분이다. 고장이 제대로 발전하자면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호 의존성이 특징인 관계자산의 넉넉함이 필수다.

고장이 이름도 얻고 번영을 누리자면 결국 문제는 사람이고 그 해법도 역시 사람이 열쇠다. 관계자산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태도에 달렸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 지방의 발전도 지방문화원이 앞장서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뜻과 힘을 모을 것 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문**

# 탄생 1백주년을 맞은 문인들



오승훈 | 문화일보 기자

너나없이 ‘히딩크 찬사’를 늘어놓는 요즘이지만, 나의 유감도 보태야 할 것 같다. ‘축구, 그 이상의 것’을 찾는데 분야가 무슨 상관이었는가.

얼마전 한 사석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뜸 “온 국민이 한국 축구의 신화를 만들어낸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쌍큐 히딩크’ 한다는데, 나아말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려니 했는데, 이교수는 한술 더 떠 “그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도대체 히딩크와 음악이 무슨 상관이람.

그가 보기에 히딩크가 던진 가장 절실한 메시지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 또 무엇이지도 즐겨야 발전한다는 것, 두 가지라고 했다. 사실 이교수는 국내 바이올린 부문의 ‘간판 연주자’다. 1978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1980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등의 입상경력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연주경력을 뒤로 하고 1994년 이강숙 총장의 권유로 귀국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몸담은 지 올해로 8년.

그는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 보다 그들의 부모를 설득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했다. 항상 “이 아이는 이러저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늦어지더라도 연습을 더 해야 합니다”라고 권유하면 십중팔구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은 어려운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쉬운 곡을 연습하느냐”, 혹은 “이번 콩쿠르에 입상을 해야 하니 필요한 테크닉을 단기간에 가르쳐 달라”고 주문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투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는 기간, 즉각적인 효과의 유무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들의 집착에 이 교수는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는 사이 정작 아이들은 음악하는 길이 진정 어떤 것인지, 그것의 고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월드컵 개막을 앞둔 5월말 한국팀이 유럽의 강호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을 무승부로 끝낸 뒤 히딩크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교수는 눈물이 났다고 했다. 8년 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는데 그 보다 더 절실한 대변자가 없더라. “그래, 저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또 온통 히딩크를 배우려 난리들인데 이 때 음악을 하려는 사람들도, 아니 축구에 못지 않게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예술의 문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들리겠지”라고 그는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제대로 하려면 멀어도 돌아가야 하고, 무엇이든 바탕이 중요하며, 그 힘겨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 교수는 한국 축구의 성장을 보며

“우리에게 정말 저런 힘이, 소질이 있었나 믿기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제대로 꽃을 피울 생각은 없고, 당장의 효율과 성과만 바라고 달려온 우리의 관성을 버려야 한다”고 한참 동안 열변을 토했다. 연주스타일이나 곡해석에서 엄격하기로 정평이 난 그가 그렇게 ‘오버’하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올해 문학계는 우리가 확인한 ‘축구의 기본’ 못지 않게 탄탄한 근대 문학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국민시인’의 대접을 받는 김소월(1902~1934)과 정지용(1902~?),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김상용(1902~1951) 시인, 그리고 소설가 나도향(1902~1927), 주요섭(1902~1972), 채만식(1902~1950) 등 6인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이들에 대한 재조명과 추모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1902년생으로 초창기 서양식 문학교육을 받은 이들은 1920~30년대 다양한 문예사조를 선보이며 한국 문단의 황금시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동갑나기이지만 이들의 작품세계와 행로는 근대문학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다양했다. 김소월은 한국적 서정을 표현한 대표시인으로 일컬어진다. 1920년 ‘낭인의 봄’ 등을 ‘창조(創造)’지에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후 1922년 ‘개벽(開闢)’지에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 작품인 ‘진달래꽃’을 발표하여 각광을 받기까지 불과 5, 6년의 짧은 문단생활 동안 그는 154 편의 시와 시론을 남긴 그를 두고 평론가 조연현씨는 “1920년대에 있어서 천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인이었다”고 평가한다. 짙은 향토성을 전통적인 서정으로 노래한 그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작품으로 남아있다.

정지용은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불린다. 시풍에서 만큼은 소월과 시대의 간격을 벌려놓았다. 고전적 형식의 탈피, 과감한 토속적 시어의 발굴에서 보여준 그의 역량은 우리 시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특히 그는 1933년 ‘가톨릭 청년’의 편집고문으로 있을 때, 이상의 시를 실어 시단에 등장시켰고 1939년 ‘문장(文章)’을 통해 조지훈·박두진·박목월의 청록파를 등장시켰다. 시풍과 인맥에서 한국 현대시의 신경지를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월북 작가로 알려진 그는 꾸준히 국민의 관심 속에 있던 소월과는 달리 1988년 4월1일 해금되셔야 대중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김상용 시인은 1935년 ‘물고기 하나’, ‘망향’ 등 식민시대 지식인의 울분을 담은 서정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1936년 시집 ‘망향’ 등에선 일제의 탄압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체념의 성향을 보인다. 자연적이고, 동양적인 체념이 엿보이는 관조가 주조를 이루나 1950년 수필집 ‘무하선생방랑기’가 보여주듯이 사회와 개인 간의 모순에 대한 긴장, 억압적인 구조에 대한 개인의 무력함을 변민하는 그의 시심은 시단의 폭을 넓혀놓았다.

소설가로서 나도향, 채만식, 주요섭은 1920년대 이후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이행하는 문단의 족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채만식은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등 일제하 식민지 현실을 비판한 풍자소설로 주목을 받았고, 나도향은 1921년 ‘백조(白潮)동인으로 참가

한 후 ‘물레방아’ ‘뽕’ ‘벙어리 삼룡이’ 등을 발표해 주관적인 애상과 감상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1930년대 ‘아네모네 마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작가 주요섭은 초기의 휴머니즘, 중기의 자연주의적 경향, 말기의 사회고발적인 현실의식 등 다면적인 성장사를 갖고 있다.

이처럼 6인은 문학사에서 시풍, 사상, 시적 상상력의 넉넉한 토대를 쌓아준 선구자들이자, 중흥기의 ‘스타’들이다. 이들의 작품을 문학사 속에서 재조명하고, 다시 대중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문단의 역량을 다지는 정지작업과 동일과정인 셈이다. 서점에서 시와 소설 판매량이 급감하고, 시대의식 보다는 시류가 앞서며, 작가의 식 보다는 브랜드화한 작가의 상품성이 우대받는 풍조 속에서 ‘문학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문단의 위기감을 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멀지만 돌아가는 길’ 일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대해 추억함이 아니라 보다 현재의 진전을 위한 담금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학계가 보여주는 ‘토대 다지기’는 어딘가 맥이 빠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6인의 탄생 1백주년 행사의 규모나 처지가 제 각각이고, 그다지 열기도 뜨거워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에는 정지용을 추모하는 행사가 서울과 그의 고향인 옥천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지용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 모인 ‘지용회’라는 중심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그의 생가가 복원된 고향 충북 옥천에선 5월9~12일에 추모행사인 ‘지용제’가 열렸다.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로 김지하씨를 선정됐고, 조출한 시상식도 가졌다. 6월에는 지용이 유학시절 대표작 ‘향수’를 발표했던 일본 교토시에 시비가 건립되기도 했다.

채만식의 경우도 고향인 군산에 지난해 채만식문학관이 건립돼 추모 행사에선 모양을 갖추어 줄 수 있게 됐다. 유족 등이 참여한 채만식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8월에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난 5월에는 채만식이 1920년대 서로 다른 필명으로 신문, 잡지에 발표했던 단편소설 4편이 새롭게 발견돼 탄생 1백주년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

반면, 평안북도에서 태어났고 문단에 인맥을 만들어놓지도 못했던 김소월은 그런 예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직까지 어느 단체가 별도로 소월의 추모행사를 한다는 소식은 없다. 서울 남산에 서 있는 시비와, 그의 시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7년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김소월 문학상’만이 겨우 후세들의 염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시인’에게 보내는 우리의 애정이 이 지경이다. 서울 출신인 나도향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은 지난 3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그의 다녔던 배재학당과 정동제일교회가 주관하고 소설가협회가 나서주었다.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난 김상용의 추모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그나마 위안을 갖게 하는 행사는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오는 9월 26~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하는 6인의 탄생 1백주년 기념 문학

제다. ‘식민지의 노래와 꿈’을 주제로 6인의 작품활동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토대를 형성한 생애를 조명한다.

지난해 탄생 1백주년을 맞았던 김동환, 박종화, 박영희, 심훈, 이상화, 최서해 등의 삶과 작품을 조명했던 ‘근대문학, 갈림길에 선 작가들’ 심포지엄에 이어 심도 있는 문학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현대문학관은 오는 10월 문학사, 비평학회와 공동으로 ‘정지용·채만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학술세미나와 함께 작가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각종 유품과 작품 초간본 등을 전시할 예정이어서 그들의 향기를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눈길을 밖으로 돌려보면 더욱 유감이 커진다. 올해초 프랑스에서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탄생 200주년(2월 26일)을 맞아 온 나라가 ‘생난리’를 쳤다는 소식, 혹은 대문호들의 기념물과 행사가 각국의 대표적 관광상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는게 아니다. 그들의 태도가 부러워서 그런다.

최근 프랑스에는 이색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는 위고 뿐만 아니라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등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뒤마(1802~1870)의 탄생 200주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유해 이장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도시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이 급기야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뒤마의 고향인 파리 동북부 빌리에-코트레에 묻혀 있는 유해를 파리 팡테옹(만신전)으로 옮겨 동료 소설가인 에밀 졸라와 시인 빅토르 위고 사이에 안장토록 지시했으나, 빌리에-코트레 시가 불복하고 나선 것이다. 이 도시의 르노 벨리에르 시장은 뒤마가 출생지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버티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20세기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1882~1941)의 유품 원고와 메모 500여 점이 그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조국 아일랜드로 돌아와 화제가 됐다. 이들 유고에는 그의 대표작이자 현대문학의 고전이 된 ‘율리시스’의 미발견 초고도 들어있는데, 조이스가 프랑스체류 시절에 만난 친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은 800만 파운드(약 144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파리에서 더블린으로 유고를 옮기는 데 아일랜드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섰고, 버티 아헌 총리는 더블린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다고 한다. 유고 구입비 중 절반을 연합아일랜드은행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면서도 문화부장관은 “조이스 연구가나 대중이 이전에 보지 못한 유일한 유품을 얻었다는 것은 아일랜드 문화사상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유해 안장지를 놓고도 지방, 중앙 정부가 한치 양보없이 싸우는 광경, 낡은 유고를 사들이는데 쏟는 정성이 마냥 부럽게 느껴졌다면 과한 것일까.

희망이 절실하면 믿음이 되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는 짜릿한 경험을 우리는 축구를 통해 맛봤다. 6인의 부활을 나는 간절히 희망한다. **문**

# 사물에서 배우는 의미

옛 사람들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들은 눈앞의 많은 일들을 뜻없이 흘러보내는 대신 그 의미를 곱씹어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았다.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매일 보면서도 간과해 버리는 일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세계와 새롭게 만났다.

이 글에서는 조선 중기의 시인 석주 권필(1569-1612)의 시와 산문을 통해, 선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새 어이해 저리 나는가? / 마른 갈대 가지에 등지 쳤는데 / 강 하늘 매서운 바람이 불어 / 갈대 꺾여 등지가 기울었다네. / 등지야 부서져도 그만이지만 / 알마저 깨지니 참 슬프도다. / 암수 함께 날면서 구슬피 우네 / 저물어도 깃들 곳은 어디도 없고. / 그대 저 참새를 살펴보게나 / 사물 이치 진실로 알 수가 있지. / 등지 어찌 단단하지 않았으리오 / 말긴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걸세.

黃雀何翩翩 寄巢枯葦枝 / 江天 然風 葦折巢仍 / 巢破不足惜 卵破良可悲 / 雄雌飛且鳴 日夕無所依 / 君看彼黃雀 物理因可推 / 結巢豈不固 所託非其宜

〈감회(感懷)〉 3수 가운데 두 번째 시다. 강가 마른 갈대밭이 갑자기 소란스럽다. 참새 한쌍이 어쩔 줄을 모르고 제 자리를 맴돌며 우젓고 있다. 갈바람에 갈대가 꺾여, 그 갈대 위에 얹었던 제 집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여기까지는 시인이 눈으로 본 것이다. 보통의 반응은 '거 참 안됐다!'쯤으로 끝난다. 하지만 시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이 상황에 담긴 이치를 음미한다. 등지가 무너진 것은 등지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니다. 참새의 비극은 등지를 쳐서는 안될 곳에 등지를 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시인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나머지는 독자에게 넘긴다. 등지가 문제가 아니라, 등지의 위치 선정이 문제였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쩔다는 것인가? 제 10구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物理因可推)'고 했다. 그러니까 시인은 우연히 보게 된 참새의 슬픈 장면을 보고 달리 떠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등지가 무너진 참새를 통해, 사람의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 사



정 민 | 한양대 국문과 교수

는 세상에도 그런 일이 너무도 많다. 맨 땅에 등지를 틀 수는 없다. 무언가에 의지하긴 해야 하는데, 그 의지처를 잘못 선택하면 도움이 되기는 커녕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출세를 위해 권력에 빌붙고, 부귀를 위해 신의를 버린다. 목적을 이루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 그 권력이 하루 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지면 나도 덩달아 곁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 저 스스로야 줄을 잘 잡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바람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불어와 그 믿음을 허물어 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마른 갈대 위에 등지를 얹는 참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성실과 신의의 바탕 위에 등지를 틀자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려 한 것은 기실 참새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도 그는 불의한 권력과 결탁하여 그 밑에서 헛된 영화를 꿈꾸던 무리들에게 무언가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듯 하다.

이번에는 그의 <창고 옆에 사는 백성 이야기(倉氓說)>를 읽어 보겠다.

나라 창고 곁에 사는 백성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매일 저녁 나가서 밤에 돌아 오는데, 올 때면 반드시 쌀 닻 되를 가지고 왔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 도 알려주지 않았다. 비록 그 아내나 자식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이같이 하기 수십년 동안, 좋은 밥과 화려한 옷을 입고 지냈다. 그 집을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몰래 그 아들에게 알려 주었다.

"창고의 몇 번째 기둥에 구멍이 있다. 크기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만 하지. 쌀이 안쪽에 가득 쌓여 있어서 꼭 막혀 꺼낼 수가 없다. 너는 손가락 만한 나무를 가져가서 구멍 속에 넣어 살살 꺼내도록 해라. 하루에 닻되만 하고 그쳐야지 더 이상 하면 안된다."

백성은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그 짓을 했다. 그 입고 먹는 것이 아버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얼마 안 있어 아들은 구멍이 너무 작아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 크게 만들고는, 날마다 몇 말씩 꺼내왔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구멍을 뚫어 더 크게 했다. 창고지기가 도둑질을 알게 되어 잡아다가 죽였다.

아! 도둑질은 소인의 나쁜 행실이다. 하지만 진실로 족함을 안다면 또한 그 몸을 보전할 수 있다. 백성이 그랬다. 되나 말은 이익의 잔단 것이다. 하지만 진실로 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제 몸을 죽일 수 있다. 백성의 아들이 그렇다. 하물며 군자로서 족함을 안다면 어떻게겠는가? 하물며 천하의 큰 이익을 취하고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어떻게겠는가? 고령 신질부(申質夫)가 날 위해 말해 주었다.

하루 다섯 되의 쌀만 훔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 수십년 간 입고 먹는 걱정 없이 잘 살았던 아버지와, 한꺼번에 많이 훔치려다 얼마 못가 목숨을 잃고 만 그 아들의 이야기다. 재미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 이야기에서 재미를 넘어서 다른 의미에 귀를 기울인다.

나쁜 짓을 해도 만족할 줄 알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작은 재물이라도 탐욕이 지나치면 제 몸을 망친다. 도둑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미루어 나간다. 창고 곡식을 훔치는 도둑놈도 만족할 줄 알면 수십년을 편안히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가는 선비가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그 편안함이 어떠하겠는가? 다섯 되나 한 가마나 따지고 보면 몇 푼 안되는 재물이다. 그런데도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아들은 죽음을 당했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 맡아 먹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더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마지막 길은 어떻게 될까?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나라를 온통 다 결단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의 행태는 질리도록 보아왔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도 분명히 보아왔다. 그런데도 번번이 그들은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서 똑같이 파멸한다. 그 까닭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 터이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다. 바로 목전의 일이 아닌가?

다시 한편을 더 읽어 본다. <중정도 놀이(從政圖說)>란 글이다.

세상에 한가로운 자들이 무리지어 할 일이 없게 되면 몇 폭의 종이를 잇대어, 관직의 차례를 주욱 늘어놓고, 오르내리고 쫓겨나고 승진하는 규칙을 붙여 두고는, 나무를 여섯 편이 되게 깎아 덕(德)·훈(勳)·문(文)·무(武)·탐(貪)·연(軟)이란 여섯 글자를 각 편마다 써든다. 이같은 것이 무릇 세 개다. 몇 사람이 판을 앞에 두고 외치며 이것을 던져, 얻은 것에 따라 그 벼슬을 올리고 내려, 지위의 귀천을 살펴보아 승부를 결정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중정도'라고 하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 무리들이 노는 것을 보면 문득 손을 내젓고 가버리곤 했다. 병신(丙申)년에 호남에 머물 때였다. 하루는 우연히 들에 있는 정자로 나갔는데, 몇 사람이 마침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벼슬이 올라가 귀하게 된 사람도 있고, 내려가 천하게 된 자도 있었다. 혹 처음엔 쫓겨났다가 나중에 벼슬이 올라가기도 하고, 혹 처음엔 올라갔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 사이에 무슨 운수가 있는가 싶었다. 대저 올라가 귀하게 된 자가 반드시 모두 어진 것이 아니요, 내려가 천하게 된 자도 반드시 모두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 쫓겨났다가 뒤에 올라간 자가 어찌 처음에는 형편없다가 뒤에 훌륭하게 된 것이겠는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쫓겨난 자가 어찌 처음엔 현명했다가 나중에 멍청하게 되었겠는가? 벼슬이 오르내리고, 승진하고 쫓겨나는 것이 어찌고 멍청함을 가지고

논할 수 없다면 다만 재수가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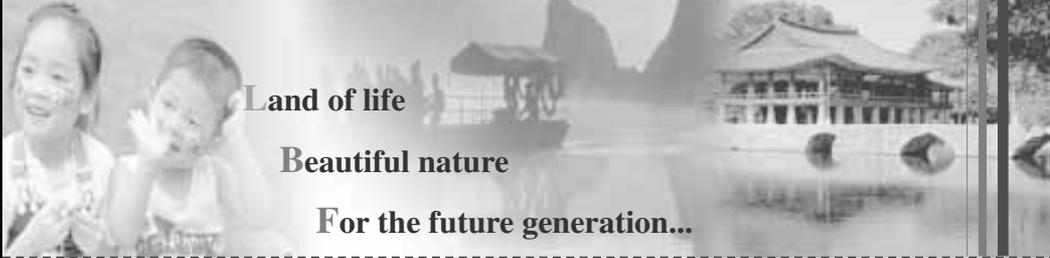
아아! 내가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을 살펴보니 이 종정도 놀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기교를 부리는 지혜가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종정도 놀이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윗놀이와 비슷한 것으로, 예전에 아주 즐겨 하던 민속놀이의 하나다. 종9품에서 정1품까지의 벼슬을 말판 위에 그려놓고, 주사위를 던져 얻은 점수에 따라 말판을 옮겨, 가장 먼저 영의정을 거쳐 사계장(賜几杖)을 받게된 사람이 이기는 놀이다.

그는 우연히 이 놀이를 곁에서 지켜 보다가, 당시 정치 현실로 생각을 옮겨갔다. 요컨대 나라를 위한 경륜이나 덕망, 행정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줄을 더 잘 서고, 운이 따라주느냐에 따라 갈라먹기 식으로 나뉘어 갖는 것이 벼슬자리가 아니냐고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아닌 종정도 놀이 이야기로 당시 조정의 하는 일 없이 녹만 축내던 무능한 벼슬아치들을 매섭게 나무랐다.

글에서 보듯 권필은 결코 타협을 모르는 깨끗한 반골의 선비였다. 광해군 때 외척의 전횡을 보다 못해 이를 풍자한 시를 썼다가,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 매를 맞고 죽었다. 하지만 그를 죽였던 임금이나, 그를 믿고 날뛰던 무리들은 얼마 못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과 정신은 오늘날도 뚜렷이 남아 사람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

黃雀何翩翩 寄巢枯葦枝  
江天 然風 葦折巢仍  
巢破不足惜 卵破良可悲  
雄雌飛且鳴 日夕無所依  
君看彼黃雀 物理因可推  
結巢豈不固 所託非其宜



## 문화환경가꾸기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2001년 '지역문화의 해'까지 11년 동안 예술의 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특정예술장르를 지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화환경 가꾸기'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1~22일 대전광역시 유성리베라호텔에서 문화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관으로 「문화환경가꾸기 전문가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된 내용 가운데서 조명래(단국대)교수가 발표한 '문화와 환경의 만남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축약 전제하면서 민간운동차원의 지역문화 환경가꾸기 운동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문화환경보전과 시민운동

문화환경의 보전은 단일 문화유산이나 환경사안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여러 부문에 걸쳐 종합적이며 입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시민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보전·관리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와 환경이 중요해지는 시대, 이 양자의 통합적 보전은 정부가 주도해서 문화재를 지정해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환경을 문화로 옮겨내고 문화를 환경으로 옮겨내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시민운동이 바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이하 NT)이다. NT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자산기부를 통해 훼손될 소중한 환경 및 문화자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한 뒤 이를 시민주도

적으로 영구히 보전관리해 가는 시민운동'을 뜻한다.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의 30여개 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NT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화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한 전형이 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NT운동이 활발히 소개되고 있고 또한 여러 지역과 분야에서 실제 시도되고 있지만, 운동방식이란 측면에서는 환경을 보전하는 데 역점을 둬 따라 문화 부문에 대한 보전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다루어져 왔다. 영국의 NT운동은 문화유산 보전운동(heritage preservation)으로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세계적으로 NT운동은 문화유산 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근자에 들어 환경(예, 특정 생태종의 서식지)을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운동의 외연확대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NT운동은 자연스럽게 문화와 환경을 함께 묶어 지켜가는 운동이 되고 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 NT운동은 본래부터 문화와 환경을 구분하지 않은채 운동의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 다루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영국의 NT운동의 정식명칭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 인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곧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는 환경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NT운동은 처음부터 문화와 환경의 보전을 전제로 하는 운동을 지향해 왔던 것이고, 그 전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유산 보전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근저에는 환경과 문화가 구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NT는 한편으로는 유산신탁으로 불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신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NT운동은 국민들이 신탁한 자산으로 건축물, 산업 시설, 유적, 예술작품 등을 시민의 이름으로 매입 확보한 뒤 이를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시민자원운동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산·강·호수·습지·농지·서식지 등을 매입 확보한 뒤 이를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 보전하는 시민자원운동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NT운동에서 환경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운동의 대상으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점이며, 둘째 개별 사안에서는 이 양자를 함께 묶어 매입하고 보전하는 점이고, 셋째 시민운동이란 방식에서 이 양자간에 구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NT가 운동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 ①주요 경관지역(예, 경관공원), ②문화재(예, 사적 건물, 성, 정원, 전통적인 산업시설, 교회, 선사 및 로마시대 유물지역 등), ③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예, 해안)등 세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현재 NT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역사적인 건물 164채, 성 19채, 정원 160곳, 교회 및 성당 49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곳, 경관공원 73곳, 건물 2,792동, 농토 27만 헥타르, 해안선 560만 마일에 이르며, 근저에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운동 대상 자체가 환경과 문화자산 구분없이 망라되어 있다.

둘째, NT운동은 역사적 건물이나 성, 그리고 시설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주변환경과 묶어서 관리한다. 이의 전형적인 예는 저택과 농토, 그리고 저택에 내장된 소장품 등을 함께 패키지로 매입하여(혹은 기증받아) 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마을 전체를 트러스트 마을(예, 전형적으로 브리스톨 근방의 레이콕 마을을 들 수 있음)로 기증받거나 조성한 뒤 그 곳의 주변환경과 건축물은 물론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습속이나 인간관계(주로 직계가족만 거주)를 통합적으로 보전하는 예도 있다. 근저에 들어 NT운동은 해안이나 습지·산·숲 등을 자연학습이나 예술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문화적 프로그램과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 문화적 요소를 보다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운동의 내용이 된다.

셋째,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NT운동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이 성금을 내고 기부를 하면(신탁을 하면) 이를 재원으로 지켜야 할 문화·자연유산을 매입 확보한 뒤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영구히 관리하고 지켜가는데 있다. 이때 트러스트는 좁게 말하면 시민들이 성금내고 '기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넓게 말하면 이를 중심으로 시민회원을 모으고, 또한 모금된 재원을 보전신탁으로 만들어 보전해야 할 자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행위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요컨대, 시민들이 성금을 내고 봉사하는 방법을 통해 보전을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 한국 나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관계

문화관광부는 2002년부터 '문화환경 가꾸기'를 주요 정책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와 환경이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다. 지금까지 문화의 보전은 문화유산에 치우쳐 있었으며,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환경을 문화로서 보존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터라, 문화와 환경의 보전을 함께 시도하는 국가적 캠페인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로서 문화환경의 보전은 일차적으로 '문화적 환경' 일반보다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 즉 역사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개념과 영역을 확대해 도시문화환경, 건축문화환경 등을 포괄해 나가야한다. 역사문화환경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관심을 못 기울인 결과 멸실되는 근대문화유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보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은 그 문화적인 잠재 가치가 크지만 문화재 보호법 하에서는 지정 관리될 수 없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사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보전이 어려운데 일반적 특징이다.

근대문화유산은 대개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자산가치가 커 정부가 직접 매입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현실의 높은 개발잠재력으로 인해 보전용도로 마냥 묶어두는 것은 더욱 용이치 않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이 야말로 주변지역과 통합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문화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일상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근대문화유산은 보전에 관련된 주체들을 동원하고 결합해내는 시민운동적 해법,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행위를 유발하는 운동적 방식으로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시설물 중심으로, 그것도 정부의 제한된 문화행정으로 관리되다 보니 현실에서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에 의해 지정요건이 불충분한 문화유산일수록,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이 잠재적 개발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일수록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이용, 그것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훼손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문화환경 보전의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역사문화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환경 중에서도 정부도 개인도 현재

로 접근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NT운동이 개입할 부분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NT운동이란 것은 근대의 건조물이나 산업시설물, 심지어 악보, 책, 공예품, 생활도구, 영화 등과 같은 소품들을 시민들의 성금과 기부를 통해 매입 확보한 후 이를 직접 보전 관리하는 시민운동이다. 운동자체는 이렇듯 단순하지만 NT 운동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NT 운동의 원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전대상은 훼손의 위기에 있으면서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정부의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대상을 선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선정된 대상을 영구히 지켜갈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시민의 모금과 성금으로 보전되는 근대문화유산은 시민적, 국민적 자산으로 지위를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금과 기부를 통한 신탁이 필히 뒤따라야 한다. 시민의 신탁행위로는 성금, 회비납부, 유산, 유증, 상속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성'이다. 실제 NT운동은 '한 사람이 백만원을 내는 것 보다 백 사람이 만원씩 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중요한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게 NT운동의 관행이다. 국민 트러스트는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씩 내어 모은 국민적 기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는 사실 정부의 행·재정적 기여분이나 제도적 후원, 기업의 기부나 후원, 개인의 노력봉사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기업과 정부도 트러스트 형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모금된 자산을 가지고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 가령 건축물을 매입·확보하여 이를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적법한 수탁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곧 조직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수탁기구로서 활동하기 위해 내셔널트러스트는 국민의 성금과 기부를 받고 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 참고로 수탁된 자산을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신탁하는 방법에는 직접 소유(소유권 취득)뿐만 아니라 보전을 위한 임대나 소유주의 서약 혹은 계약도 함께 활용된다. 한편 수탁기구로서 NT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는 신탁된 자산을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 그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현

실적으로 이용·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NT가 문화유산을 실제 보전·관리해 간다면, 이는 이미 그 자체로서 정부가 마치 지정문화재를 지정해 관리하듯이 시민단체가 운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해 가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NT운동을 통해 보전되는 문화유산은 '시민 자율지정문화재'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이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NT 활동 전반을 합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관련 법(내셔널 트러스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법, 이를테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세법 등에서 NT의 활동이 반영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없는 지금으로선 시민모금을 통해 매입되거나 확보된 문화유산을 시민의 이름으로 영구히 지킬 방도가 없다. 따라서 NT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다.

NT운동이 하루 아침에 합법화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운동을 통한 문화유산보전을 위해서는 NT와 정부간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다시말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안별로 문화유산을 함께 보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NT운동을 통한 보전의 목표를 일정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이를테면 근대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근대문화유산을 매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보전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근대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고, 정부의 보전업무(예, 조사, 교육, 홍보)를 시민단체에게 위탁하여 대행토록 하는 것 등은 모두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함께 보전 관리하는 활동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적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각각의 자원과 전문성을 함께 풀(pool)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믿음으로서 트러스트 운동의 출발점이 된다.

# 저녁 산책

연 규 자 | 시흥문화원 간사

저녁을 먹고 산책에 나서보니  
급하게 넘어간 밥이 무거워  
연이어 한숨이 나왔다

어둠이 내린 울적한 농로에  
영기는 생각만큼 발이 빠지곤 한다  
눈에 닿는 손에 보이는  
수로 위 다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리라  
걸음을 정했다

다리 밑으로 겁끼 흐르는 하천  
개구리 한 마리 말을 걸 듯 띄엄띄엄 운다  
짐작되는 너와의 물리적 거리, 소통되지 않는  
공간의 거리

손을 뻗으면 어디든 너에게 닿았었다

돌아보니  
토하듯 불빛을 내뿜고 있는 고층아파트 위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하늘이  
피로하게 얹혀있다

생각난 듯 다시 말하는 개구리 한 마리

.....

1962년 충북 제천 출생  
1994년 월간 '문예사조' 수필부문 신인상  
1996년 시집 출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 고향이 좋다 '이천'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mailto:domingo@cultureplus.com)

## 도자기 축제의 성공 밑거름 ... '이천문화원'

쌀과 도자기의 고향 이천. 서이천 툇게이트를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다보면 대문짝만하게 '쌀'·'도자기'라고 쓰인 간판 글씨가 눈길을 확 잡아당긴다. 도로 양옆으로 도열한 가게중에 '쌀'과 '도자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광고탑이나 간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이천은 장호원의 복숭아로도 유명하지만 대표적인 산물은 뭐니뭐니해도 쌀과 도자기다.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치면 지난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고향으로서는 두말할 것 없이 도자기다. '동네축제'에 불과하던 이천도자기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천문화원의 현명한 판단력과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천에서 관광 축제 소재로 삼을만한 것은 도자기 말고도 여럿 있었다.

## 고향이 좋다

쌀도 품질 좋기로 유명하고 복숭아도 이름나 있다. 인물은 나라를 침입한 거란의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피한방을 안홀리고 적군을 물리나게 한 고려의 명장 서희장군이 있었으며 민속으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 등 한번쯤 관광축제 소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었다. 이천문화원은 그 중에서 이미 8년 동안 축제로 열고 있는 도자기를 관광축제화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곧 대박을 터뜨렸다.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던 도자기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시범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관광축제로 부상한 것. 이천문화원이 지난 세월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도자기 축제를 열어온 노력이 비로소 꽃을 피운 것이다. 지난해 열린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이같은 이천문화원의 땀과 정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싹틔울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비엔날레로 바뀌어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그 사이사이 해에는 도자기축제가 민속축제로 열린다. 현재 도자기엑스포가 열렸던 설봉산에는 푸른 호수를 배경으로 이천의 도자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천세계도자문화센터와 이천시립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에는 이천세계조각심포지엄 출품작들로 세계 유명 조각가들이 깎은 부조들이 늘어서 있어 주말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접근이 어렵지 않은 이천은 주말 여행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자기의 고향'으로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천에 와서 도자기만 느끼고 가면 재미 없는 여행이다.

여행길에 좀 출출하다 싶으면 간판에 '쌀' 자가 들어간 식당에 들어가 밥맛을 맛보라. 늘 먹는 밥이 뭐 다르게 있느냐 싶지만 임금님 수랏상에 올리던 진상미인 이천쌀로 지은 돌솥영양밥이 다르긴 다르다. 밥맛을 즐기다 보면 상위에 10여종의 반찬이 올려져 있는 것도 모른다.

더 나은 여행을 하고 싶으면 이천문화원(031-635-2316)이나 이천시 문화공보실(031-644-2102), 이천시 도예팀(031-644-2273~6)으로 문의하는 게 좋다.



1999년 제40회 전국학생민속예술제(제주시)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천 거북놀이



이천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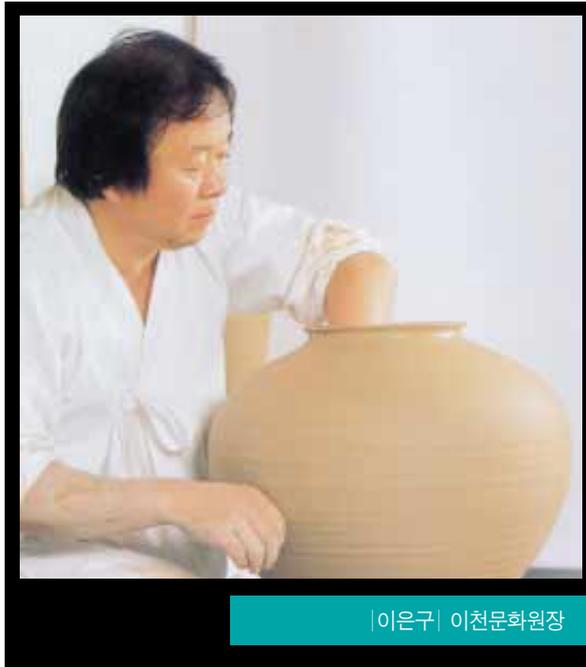


이천세계도자문화센터

## “문화원 사무국 직원 신분 보장 절실하다”

이천의 문화를 일구고 있는 이천문화원 이은구원장(59) 역시 39년동안 전통 도자기 연구와 작품활동을 주력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분청사기의 대표적 장인이다.

그가 도예인의 길로 접어든 것은 군입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천이 아닌 공주가 고향인 그는 한양대



|이은구| 이천문화원장

건축공학과 재학중 도예가인 조동헌 선생 문하에 들어간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이천에서 꼬박 10년동안 ‘흙과 불과 물의 조화’를 배운다.

지난 76년 아호를 그대로 딴 ‘청과요’를 설립했다.

현재 그의 이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  
예산 차등지원은  
나쁘지 않다.  
단  
심사나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

81년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 개인전을 비롯해 96년 일본 大阪近鐵 백화점 60주년 기념 초대 개인전, 2001년 서울 롯데 백화점 화랑 개인전, 84년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기념 6대 작가 초대 도예전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했다.

또한 그가 빚은 도자기는 청와대나 정치가들을 통해 일본 천황가를 비롯해 이붕 전 중국총리·옌친 전 러시아 대통령·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일본 전 무라야마 총리·시라크 프랑스 대통령·푸틴 러시아 대통령등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건네졌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월 23일 부터 29일까지 일본 동경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열린 2002 한일 FIFA 월드컵 기념 도예전에 미쓰코시 100년 역사상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품 활동과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95년 서울신문사가 제정한 제11회 향토문화상 현대문화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96년 공주시문화상, 97년 이천시문화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대한민국 문화훈장인 화관 문화훈장을 서훈받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원장직을 맡은지 12년째이자 임기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그를 도자기가 준비하게 진열된 청파요에서 만나봤다.

▶ 예전에 비해 전국 문화원이 여러모로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문화원이 많다.

“문화 관련 재정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화원의 지원을 지자체 재량에만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비가 사라질 경우 지자체의 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문화는 예산 지원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말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화원은 국가에서 끌고 가야 한다. 지방자치제라는 미명하에 예산이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다면 그나마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커가고 있는 지역문화를 시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하다. 문화원의 자립은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문화원이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문화원이란 존재가 ‘보따리장수’는 아니잖은가? 선진국에서도 정부나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아직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IMF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지방문화에 대한 기업의 지원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문화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문화원에 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은 나쁘지 않다. 단 심사나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문화원장은 ‘국제행사도 치른 이천문화원이 B등급을 맞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향토문화 연구사업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특히, 다시 부활시킨 거북놀이에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향토문화 연구사업은 지난 78년부터 시작해 어언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그 동안 펴낸 향토문화 관련 연구보고서만 해도 향토문화자료 총람집 5권, 향토문화 조사 보고서 5권, 이천독립운동사, 이천의 인맥 등 여러 종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수의 기초자료들을 수집해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달에 발간한 이천시지 전 7권은 그 동안 문화원이 쌓아온 향토사 연구분야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두 11권으로 금년에 완간되는 읍면별 문화유적 및 민속자료보고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책이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거북놀이 보존과 풍물놀이 보급 활동이 중심이다. 8월 한가위날 밤 휘영청한 달빛 아래 흠뻑게 마을을 돌며 판을 벌이는 민속놀이인 거북놀이는 걸립이나 지신밟기와 비슷하지만 수수깡으로 엮은 거북이와 질라아비를 앞세우는 방식이 특이하다. 아이들의 놀이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 70년대초 대월면 주민들이 재현해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자리잡은 거북놀이는 기능 보유자인 노인들이 사라져 보존에 어려움이 컸으나 지난해 지역에서 민속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 이천거북놀이 보존회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전승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열린 이천세계조각심포지엄 개막식 장면

▶ 설봉문화제와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 말해달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설봉문화제는 이천도자기축제를 탄생시킨 이천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제다. 도자기축제가 독립 행사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축제의 성격을 민속축제 중심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금년 5회째를 맞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도 아마 지방문화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속적인 행사를 갖는 국제예술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적인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려면 우선 예산확보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자체를 설득하는 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자기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를 문화원이 맡아 치러온 경험이 있어 행사준비와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

▶ 이천문화원은 8년동안 도자기축제를 키워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을 제공했다. 이처럼 지방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성장하려면 문화원과 민·관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이 각각 어떠한가?

“이천도자기축제는 지난해 세계도자기엑스포로 까지 발전해 성공을 거듭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었다. 도자기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지난 10여년간 문화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예산지원도 전혀 없었고, 주민들의 호응도 저조하기만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 없이 꾸준한 행사개최와 함께 일본의 저명한 도자기축제를 직접 찾아다니며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행사규모가 워낙 방대해져서 이천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원은 도자기조합과 함께 행사준비 및 진행을 돕고 있다”

## ▶ 타 지역 또는 문화원과의 교류 현황과 성과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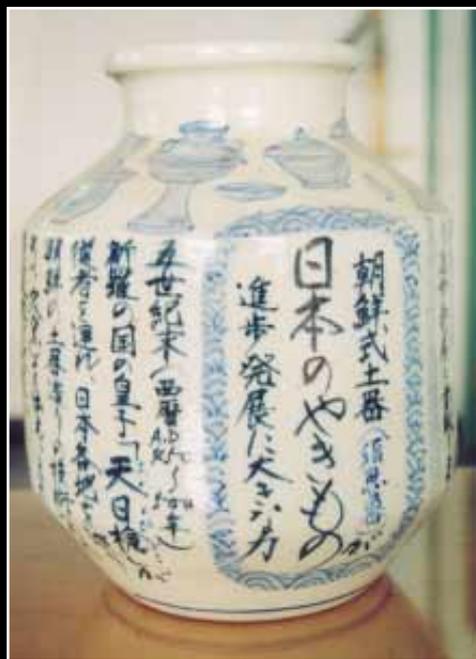
“이천문화원은 일본의 유명한 도자기 산지인 시가라키町과 지난 92년부터 문화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한 국제 우호 친선 및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996년에는 문화원과 시가라키 관광협회 사이에 정식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도자기 서신’을 통해 도자기 고장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그 동안 두 도시의 도자기축제를 상호방문해 축하하고 도예작가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또 매년 이천문화원 품물단이 축하 공연을 갖기도 한다. 지난해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 일본을 방문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교류는 단절하더라도 이제까지 쌓아온 민간교류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측으로 부터 큰 환영을 받고 또 하나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천문화원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시가라키 町이 일본의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왜곡 교과서 불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 ▶ 문화원은 국고지원 축소나 유사기관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문화원은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것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건의할 것이 있다면 ?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문화원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이다. 이것 때문에 문화원 발전이 더디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이 공무원 직원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함으로써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정치가 논리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나 예산을 지방으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더 이상 안나왔으면 한다. 지방문화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문화를 중앙에서 지자체에 넘길 때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문화를 적절하게 복돋아야 할 때이다”



▲이천문화원은 일본의 시가라키町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사진은 시가라키町에서 보내온 ‘도자기 서신’



▲토미마쓰 준이치 시가라키 관광협회장과 이은구 이천문화원장이 ‘문화교류 확인서’를 교환하고 있다.

## 이천시사



이천문화원이 이천 시로 부터 위탁받아 4년간의 자료조사와 편집작업끝에 완간됐다. 이천시사는 이천의 방대한 자연·역사·사회·문화·생활등을 총망라한 7권

짜리 역사작이라 할만 하다. 쏟아부은 비용만도 6억5천만원으로 적잖다. 총페이지가 무려 3천8백48페이지, 사진이 1천6백23컷에 달하고 집필자만도 96명에 이른다. 특히 이천시사는 다른 시군의 시사에 비해 정성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베제만큼이나 두껍게 만들던 시사를 여러권으로 쪼개 이동이나 검색이 용이토록 했는가 하면 내용도 본문과 주석을 적절히 배열해 가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세련미를 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천시사가 가지는 특징은 서민생활을 담은 제6권 '개인생활과 마을'이다. 이 책에는 현재 이천에 살고 있는 복숭아·담배 농사꾼을 비롯해 체육교사가 장래소망인 학생, 원조떡집 상인, 여성노동자등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천시사는 또 대가족·핵가족·농가, 도예촌·농촌·도농복합등 다양한 삶을 기록해 놓아 주위로 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의 서민생활 담아 '눈길'**  
예산 6억5천만원,  
집필자 96명 투입  
총 7권짜리 '역작'



▶이인수 사무국장 (앞은이)과  
김영길 총무과장, 한미정 간사

## 이천문화원 가족들 이인수 사무국장 25년 관록의 '축제 베테랑'

김영길 총무과장 풍물패 상쇠로도 활동... 여간사 살림살이 꼼꼼히

지난 63년 5월 설립한 이천문화원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2년뒤인 65년으로 몇해 더 있어야 한 시대를 갈무리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만 놓고 보면 '원로격'인 문화원이다.

이천문화원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임직원들의 '장기 근무'로도 유명하다. 올해로 임기 마지막해를 맞은 이은구 원장은 12년째 문화원장으로 헌신해 오고 있다. 유광열 전 원장(현 해강도자미술관장)도 마찬가지로 12년동안 역임해 이 원장과 함께 이천의 문화를 이끌어 온 양대산맥으로 불린다. 특히 이인수 사무국장은 한술 더 떠 이 두명의 원장 재임기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5년 동안 문화원에 몸을 담아오고 있다. 그야말로 문화원의 산증인인 셈이다. 이인수 사무국장은 '동네축제'에 불과했던 이천도자기 축제를 8년동안 키워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만드는데 초석을 제공한 '핵심'이기도 하다. 문화원 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뽑는데도 '빠꼼이'란 소리를 듣는 이 국장은 축제의 씨앗부터 열매까지를 몸소 느낀 문화원의 몇 안되는 전문가로 다른 문화원에서 강사로 초빙하면 들을 얘기가 많을 사람이다. 그는 축제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영길 총무과장 역시 사무를 보면서 소슬패 풍물단을 이끄는 상쇠로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보통을 넘는다. 이들 옆에서 한미정 간사가 문화원 살림을 꼼꼼하게 돌보고 있다.

이천문화원은 문화학교 수강생이 2백30명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원 여성회가 26명, 문화원 학생회가 25명, 향토사연구소가 7명, 소슬패 풍물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총예산은 4억8천2백만원.



# 전통소금 ‘자염(煮鹽)’ 을 아십니까?

태안문화원, 50여년 만에 축제로 재현해 내

김정호(향토문화컬립니스트)

# salt

## 값싼 천일염에 밀려 생산끊겨

해방이후 명맥이 끊겼던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생산방식이 50여년만에 재현되었다. 충남 태안문화원(원장 이갑춘)은 지난 5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옛 자염 생산지였던 태안군 근흥면 마금2리 낭금마을에서 학계와 언론계,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염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길놀이, 소금고사, 자염소개, 통자락 체험(씨래질·염도측정·간수운반), 소금가마 불지피기, 자염수확 등의 순으로 8시간에 걸쳐 소개되었으며, 태안문화원에서 미리 만들어둔 자염을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태안문화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자염 생산이 재현될 수 있었던 데는 전통과 생활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향토사가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농부시인 정낙추(흙빛문학회 회장, 태안문화원 이사), 가덕현(태안군 근흥중학교 교사), 신세철(신월생활유물전시관 관장, 태안문화원 이사)씨 등 세 사람은 명맥이 끊긴 자염을 복원하기 위해 태안지역 곳곳을 답사한 끝에 지난해 1월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 갯벌에서 옛 염벗터(자염을 끓이는 가마)를 찾아냈다. 자염생산을 했던 생존자들을 찾아내 고증을 거친뒤 염벗터와 가마술, 각종 도구를 제작해 그해 5월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자염(煮鹽)은 바람과 햇빛에 수증기를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 제조방식과는 달리 끓일 자(煮)와 소금 염(鹽)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바닷물에서 염도를 높인 함수를 끓여 만든 소금이다. 오래전부터 전남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발달한 전통적인 제염방식이다.



자염(煮鹽)은 바람과 햇빛에 수증기를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 제조방식과는 달리 끓일 자(煮)와 소금 염(鹽)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 바닷물에서 염도를 높인 함수를 끓여 만든 소금이다

## 갯벌속 미네랄이 고스란히 담겨



자염은 바닷물속에 녹아있는 염분을 추출하지만, 바닷물 자체에는 대략 3.5%의 염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력과 땀감이 많이 들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옛부터 염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것을 함수(鹹水)라고 한다.

함수는 염분이 들어있는 갯벌에서 만들어진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소를 이용해 갯벌을 4~5일 정도 썰래질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염도가 높은 함토(鹹土)를 만든다. 만조시에 바닷물을 여과시키면 함토의 염분이 녹아 농도가 높은 바닷물 즉 함수가 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4배 가량 높은 13~15%가 된다. 이 함수를 넓은 가마에 담아 8시간 정도 끓이면 자염이 만들어진다.

보통 300리터의 함수에서 60kg(1섬)의 자염이 생산되며, 이때 땀감으로 마른 솔가지 두 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밤가마, 낮가마라고 하여 밤낮없이 자염을 생산했다. 간수를 뺀 자염은 배꽃처럼 희고, 천일염보다 입자가 곱고 가벼운게 특징이다. 자염맛을 본 사람들은 천일염보다 짠맛이 덜하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 갯벌속의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철, 아연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홍성군 강경지역은 젓갈로 유명하여 매년 젓갈축제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예전부터 태안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이 이곳에 집하되면서 서해안에서 잡힌 각종 수산물과 만나 질 좋은 젓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태안지역 노인들에 따르면 “태안에서 소금을 가득 싣고 강경포구에 닿으면 물려든 상인들의 흰옷이 마치 백로떼 같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태안은 충청남도 제일의 자염생산지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다.

자염은 해방이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 부족한 소금의 생산증대를 위해 정부 소유의 제염권을 개인에게도 허가권을 내주면서 곳곳에 천일염전이 생겨났다. 새로 개설된 천일염전에서 소금 생산량이 증가하고 싼값에 유통되자 자염은 50년대를 전후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 자염 생산단가의 30%를 인건비와 연료비가 차지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낮은 천일염과는 경쟁이 될 수 없었다.

태안문화원 정지수 사무국장은 “태안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자염축제는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면서 “지역의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자염의 상품화를 위해 천일염전의 간수를 자염과 같은 방식으로 끓여 화염(火鹽)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에서 자염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은 태안(58%)이다. 조선시대 영조때 조사된 이 지역의 염벚터가 453좌로 기록되어 있다. 태안문화원에서 소원면 한 지역만의 염벚터를 조사한 결과 대략 40여곳에 이르렀으며, 태안군 전체의 염벚터는 대략 150~200군데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태안이 자염생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

었던 이유는 지리와 기후적인 환경이 자염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갯벌이 넓게 발달한 독특한 해안이 곳곳에 있었으며, 나라에서 선박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을 보호하는 봉산(封山)이 태안에 있어 이곳에서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염은 여름철 장마철을 피해 음력 3~5월과 8~9월이 적기인데 날씨가 생산량을 좌우한다.

태안은 봄, 가을에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해 자염생산량과 직결되는 함토(鹹土) 만들기에 유리했다.

한편 대규모 소비자인 서울이 비교적 가깝고, 서해안의 대표적 유통지인 강경포구

## 천일염전서 화염(火鹽)으로 상품화





##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

소금은 썩지않게 만드는 그 성분만큼이나 문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 고대에 소금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고 문명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19세기 중반 땅속에서 암염을 캐내기 시작하면서는 지층에 대한 연구가 발달했으며 이 덕분에 석유도 찾을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이나 지중해 국가들은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으며, 로마시대에 병사의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했다. 봉급을 뜻하는 영어의 샬러리(salary)는 라틴어 살라리움(salarium-현물급여)에 비롯됐고 그 어원은 소금(salt)이다.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를 문헌에서 찾아보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고구려 제15대 미천왕(美川王, 재위 300~331)이 어린시절 망명생활을 할 때 소금장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도 소금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금생산은 고려시대 이후로 보여진다.

고려 태조는 ‘도염원’을 설치해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

고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염업이 충분히 발달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융통성 있는 염제의 실시로 염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었지만, 사회기강이 어지러웠던 조선 말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쇠퇴했다.

1908년 조사된 『韓國水產地誌』의 국내 제염생산량을 보면 전라남도가 40% 이상을 차지해 으뜸이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 최초의 천일염전은 1907년 인천시 북구 십정동 주안에 만들어졌고, 태안군에서는 1948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의 중화염전이 최초의 개인염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금 소비량의 80%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가운데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5%가 전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신안에서 전국생산량의 55%가 생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되는 소금 중 중국산의 염도는 95%로 국산천일염의 80%보다 매우 높다. 국산에는 무기질(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염도가 낮다. **문**

지방선거

문화원 전·현직 임직원 5명 6.13 지방선거서 당선



서울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김현풍 강북문화원장

- 김현풍 강북문화원장 → 강북구청장
- 박홍섭 마포문화원 이사 → 마포구청장
- 이병직 전 장성문화원장 → 전남도의회 의원
- 김수철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 강원도의회 의원
- 박홍철 구례문화원 사무국장 → 구례군의회 의원

6.13 지방선거에서 김현풍 강북문화원장·박홍섭 마포문화원 이사·이병직 전 장성문화원장·김수철 화천문화원 사무국장·박홍철 구례문화원 사무국장등 문화원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당선됐다.

김현풍 강북문화원장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강북구

청장으로 출마해 14일 새벽까지 민주당 박모 후보와 박빙의 경합을 벌여 가슴을 졸이게 했다. 김현풍 강북문화원장은 상대편 후보에 근소한 표 차로 뒤지다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뒤집기에 성공해 전체 투표자의 38.9%(4만5천8백14표)의 지지를 얻어 구청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현풍 당선자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68년부터 지금까지 34년간 한번도 강북구를 떠나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현재 강북구에서 김현풍 치과의를 운영하며 강북문화원장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도 힘써왔다.

또한 마포문화원에서는 박홍섭이사가 마포구청장으로 당선돼 문화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구청장이 됨으로써 문화원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이병직 전 장성문화원장이 도의원에, 박홍철 구례 사무국장이 군의원에 각각 당선됐으며 강원도에서는 김수철 화천문화원 사무국장이 도의원 배지를 다는 영예를 안게 됐다.

제4회 도봉사진공모전

도봉문화원



도봉문화원(원장 이영철)은 도봉구의 후원아래 사진작가 및 동호인의 창작의 욕을 고취하고 사진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봉구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은 사진예술작품을 공모한다.

▶ 공모내용

- 작품소재 : 도봉구를 상징하는 예술성과 홍보가치가 내포된 사진작품.
- 1) 도봉구 문화제 및 전통제례의식
- 2) 도봉구 상징물(덩쿨장미, 소나무, 비둘기)을 소재로 한 순수 예술사진
- 3) 구민의 생활상과 활기찬 삶의 현장
- 4) 도봉구의 옛모습 및 발전모습을 담은 사진
- 5) 도봉산의 풍광 및 사계(四季)풍경 사진
- 6) 기타 도봉구의 특성을 표현하는 작품사진

- 응모자격 : 제한없음(출품료 없음)
- 작품규격 : 11"×14" 칼라 또는 흑백
- 작품수량 : 1인당 5점 이내(필름 동시제출)
- 출품요령 : 출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작품제목·소재(내용)

▶ 입상작 발표

2002년 11월 13일(수)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dobong.or.kr>)

▶ 시상내역

- 금상(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입선(40점) -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 입상작품전시 : 2002년 11월 26일(화)~29일(금)

▶ 문의 : 도봉문화원(☎02-905-4026)

## 2002 월드컵 성공기원 '마포 월드컵 응원 축제'

### 마포문화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마포문화원(원장 이선재)이 월드컵 기간동안 응원축제를 대대적으로 벌여 서울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마포문화원은 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고양시키고 대회기간동안 월드컵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포문화체육센터 광장에 월드컵 프라자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전 경기 시작전 1~2시간동안 문화예술공연 및 응원한마당 후 축구경기를 실황중계해 월드컵 붐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총 9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행사에서는 구민의 한마음 한마당 문화공연축제와 축구 경기 실황중계 외에도 역술인을 초청해 영어·일본어·중국어등 외국어로 토정비결을 봐주는등 이색적인 한국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마포문화원은 또 6월 15과 16일 양일간 난지한강공원 중앙광장에서 마포나루축제를 벌여 '세종대왕 어가 행렬' '무형문화재 58호 김대균의 줄타기' '상인 진상 퍼포먼스' 창작마당극 '시골상인 상경기' '마포구민 외국인 노래자랑! 장기자랑 대회' 등을 선보였다.

한편 마포문화원은 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사무국을 이곳으로 옮겼다. △주소: (우 121-080)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0-3 △전화: 02-712-3345 



## 서울의 새로운 명소

서울에 2대 명소가 생겼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주변에 위치한 이 두곳의 문화공간은 서울시민을 비롯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한번쯤 가 볼만한 곳이다.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역사문화 한자리에 정리...7월말까지 무료

서울역사박물관은 종로구 신문로2가 경희궁터 2만9천여평 가운데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6천9백여평부지에 시비를 투자해 건립됐다.

지난 5월 21일부터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역사·문화를 정리해 보여주는 도시역사박물관이다.

이로써 한반도 역사의 중심무대였던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투영할 수 있고 서울 시민 개개인에게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외국인에게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보물 4점을 비롯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7점등 2만1백60점에 이른다. 이중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은 전체 유물의 절반에 가까운 9천8백여점으로 시민이 만들어 가는 박물관이라 할만하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5월 21일 부터 8월 18일 까지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와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영상과 모형으로 보여주며 서울시민에게는 도시 가꾸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에게는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도시적 이슈를 이해시키기 위한 '서울 2002, 도시비전과 실천' 등 2개의 특별전을 열고 있다. 1층 오른쪽에 마련된 유물기증자를 기념한 '기증유물전시'에는 각종 서책과 고지도, 도기, 옛 카메라등을 볼 수 있다. 7월 31일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 [www.museum.seoul.kr](http://www.museum.seoul.kr), 전화 : 02-724-0114





## 서울시립미술관

‘한민족의 빛과 색’ 전 열어... ‘천경자의 혼’은 상설 전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옛 대법원 건물을 전면 개보수해 5월 17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은 21세기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문화공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내의 우수한 소장품을 꾸준히 수집한 결과 현재 1천3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르도 서양화, 한국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하다. 이들 소장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특징은 현대성이라 할 수 있다.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7일 부터 7월 5일 까지 색을 통해 한국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읽어 볼 수 있는 ‘한민족의 빛과 색’전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부터는 국내 화단의 대표적인 한국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작품 기증을 기념하는 ‘천경자의 혼’을 2층 천경자실에서 상설전으로 열고 있다.

이 상설전은 ‘보라빛 정한’ ‘영원한 초상’ ‘끝없는 여정’ ‘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도안화와 드로잉’ ‘화가의 방’ 등으로 꾸며 꽃과 뱀 · 여인으로 대변되는 화백의 자화상을 비롯 해외스케치 여행중에 만난 이국 여인의 인물화, 여행풍물화, 학창시절의 도안화, 드로잉등 1940년부터 90년에 이르는 작품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시립미술관은 개관전을 기념해 천경자 아트상품 아이디어 공모전과 미술 전문가 초빙 특별강연회도 열었는가 하면 천 화백의 그림을 수록한 화집 ‘천경자의 혼’과 영상비디오도 제작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은 지하1층에 컴퓨터를 이용해 도깨비를 그려보는 코너를 비롯 색종이로 만들기, 전통매듭짓기, 우리색 물들이기등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홈페이지 : <http://seoulmoa.org>, 전화 : 02-2124-8800 ☎

# 금강산 萬物像에서 금강초롱을 만났다

김 종 우 | 의성문화원장



완주할 것이라고 굳은 마음 자세로 차분한 발 걸음을 내디뎠다. 천하 제일 명산 금강산은 태백산맥의 연장으로 해발 1,638m의 비로봉이 중심되어 남북을 이어 주는 위대한 예술품이다. 문헌에서나 전설에서 금강산의 이름은 열한가지에 이른다. 계절에 따라 봄의 금강, 여름의 봉래(蓬萊), 가을의 풍악(風樂), 겨울의 개골(皆骨)이라 불리어

북녘에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일 때, 전국에서 우리 의성이 생산한 쌀이 가장 많이 보내졌고 경원선 철도 연결에 쓰인 침목은 의성의 삼성콘크리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남북한 철로 연결의 고리를 이었다. 남북한 관계에 의성지역이 관련된 일에 긍지를 항상 가져 왔다.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전국지방문화원 간사, 사무국장, 원장들은 3차례 나누어 금강산 기행을 마쳤다. 문화원장 기행 둘째 날인 5월 14일 만물상 등정이 있었다. 정해진 코스를

지고, 전설에 의하면 열반(涅槃)산, 기달(似担)산, 상악(霜嶽)산, 선산(仙山), 중향성(衆香城) 구황산, 다이아몬드 마운틴(diamond mountain)등으로 이 모든 이름들은 금강산의 명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금강이란 이름의 유래는 산이 불교의 영지로 알려져 있고, 범어의 바이아라(vaiara)로 단단하다는 뜻이다. 화엄경에서는 동북바다 건너에 일만이천봉이라는 담무갈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라 하였다. 천상에 일만이천봉 열락정토가 있다 하

여 금강산을 극락정토라고 승화시키기도 한다.

만물상을 울곡 이이는 시로써 읊었으니,

일만형상 제각기 다르니

구경하기 한이 없구나.

구경하다 도중폐지 어이하니

최고봉까지 올라 가세나.

400년 후 육당 최남선은 금강에 찬에서 만물상을 물건의 모양 아닌 것 없다며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무릇 천지간에 물건이란 모든 물건의 모양과 또 그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미관이라는 미관은 만물 초 속에 모조리 들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오죽해야 과장할 줄 모르는 옛날 사람과 상징적 확대시하고는 답을 쌓았다 할 조선인도 워낙 엄청난 경계를 당했는지라 기껏 형언하여 만물초라는 소리를 하게 되었다. 조물주가 천지만물을 배포하실 적에 설계서와 모형으로 초잡으신 것이 이 만물초라 한다하고 극찬하였다.

남북 분단으로 그 얼마나 그리던 금강산을 그것도 만물상 구역에 닿아 30여 명씩 조편성하여 등반하면서 ‘금강산아 내가 왔다’ 라고 뱃속 힘을 모아 우렁차게 불러보았다. 울곡이나 육당이 예상한 것보다 더 이상의 나의 표현으로 ‘아아, 아아’ 라는 감탄사를 있는 대로 되뇌었다. 안심대에서 망양대로 오르는 가파른 계곡은 사다리와 쇠줄로 힘을 빌려야 올라갈 수 있었다.

춘원 이광수의 금강산유기(遊記)에서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갔다. 다리를 힘껏 빌려야 겨우 올려 드릴만한 데도 있고 두 손으로 바위 뿌다귀를 꼭 붙들고 몸을 솟구쳐 오를만한 곳도 있고, 큰바위 틈바구니로 손, 어깨, 무릎, 발 옆구리를 온통 밟 삼아서 벌레 모양으로 꿈틀꿈틀 올라갈 데도 있고, 아름이 넘는 바위를 안고 살살 붙어 돌아갈 데도 있고, 넓적한 바위가 덜컹덜컹해서 소름이 쭉쭉 끼치는 데도 있고, 꽤 넓은 바위틈의 허공을 엿차하고 건너뿔 데도 있지마는 결코 위험한 길은 아니었다. 다만 대부분이 네 발로 기어오를 데요, 두 발로 걸을 때는 없었다.

그래서 한층 기어올라서는 우뚝 서고, 한 걸음이나 두 걸음 가서는 또 우뚝서고 하였지만 피곤한 줄은 몰랐다. 그리고 네 발로 걸 곳이 많음으로 얼마 안가서 지팡이를 길가에 던져버렸다. 산길이나 인생길이나 높은 데를 오르려면 몸에 가진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듯 했다.

춘원의 사다리 글은 우리가 겪은 그날 등정의 체험과도 같았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는 쉬운 가벼운 걸음으로 두손으로 쇠난간을 밀면서 사다리로 내려와 천선대 거처 감로수를 받아 목을 축이고 내려오던 중 금강초롱을 만났다.

의성을 출발할 때 서예공모전 준비 관계로 허둥대다 카메라를 가져 오질 못하였지만, 내가 꼭 찍고 싶



▲ 금강초롱

을 때를 대비하여 일회용 카메라를 간직하고 있었다. 아나나 다를까 금강초롱을 만났으니 옆의 풀을 제치고 엎드려 사진을 찍으려니 북의 환경 감시단이 이상하게 여기며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금강산에 와 금강초롱을 만났은 이번 기행에 큰 보람을 가지면서 의성에서 야생화 동호회 회원으로 2년간 익혀둔 금강초롱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중에 그 효능가치를 밝혀내지 못한 식물이 수천 수만 가지 종에 이른다. 야생풀들이 현대의학이 극복하지 못한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다며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서 신품종 꽃봄이가 임옥택 육종가에 의해 개발되어 외화 로열티를 크게 벌어들이게 되었다. 금강산 식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금강초롱이야말로 부가가치 있는 우리 들꽃으로, 나는 금강초롱을 만나고, 보고, 돌아왔지만 가까이 볼 수 없는 허전한 차에 안동야생화 동호회장에게 부처님 오신날 5월 19일에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아

이 기르듯 사랑스러이 잘 키우고 있다. 금강초롱을 만나 생태를 익히고 평양출판사가 발행한 관광안내 천하절승 금강산책자에서 만물상 구역의 금강초롱 전설을 옮겨본다.

**(금강초롱전설 : 옛날 금강산기슭 어느 마을에 부모를 잃은 오누이가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오빠는 재간있는 석공으로서 바윗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금강산을 명산으로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3년 후에 돌아오기를 약속하고 사랑하는 동생과 헤어져 깊은 금강산 속으로 들어갔다. 날과 달이 지나 오빠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 왔다.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오빠가 좋아하는 산채로 음식도 만들고 집도 알뜰히 거두면서 오빠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가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녀는 오빠를 찾아 길을 떠났다.

금강산 봉우리에는 오빠를 찾는 소녀의 목소리만 애처롭게 베아리

칠 뿐 오빠의 정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소녀가 이산 저산 헤매는 사이에 해는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다. “아, 이럴 때 초롱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오빠를 찾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녀의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초롱처럼 생긴 고운 꽃이 피어나 빨간 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소녀는 꽃송이를 꺾어 들고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따라가니 거기에는 바위를 다듬다가 쓰러진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초롱꽃이 흔들거리며 향기가 풍겨 나오더니 오빠가 스르르 눈을 뜨는 것이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왔니?” 오빠는 너무 반가와 동생을 얼싸 안았다. “오빠, 이 초롱꽃이 오빠를 찾아

내고 살려주었어요.”

소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초롱꽃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오누이는 금강산 구경을 왔던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지쳤을 때 이 꽃을 꺾어들라고 금강산 곳곳에 초롱꽃을 심고 가꾸었다. 금강산을 아끼고 사랑해 온 오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피어난 듯 고운 이 꽃이 금강산에서만 있다하여 ‘금강초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말 이 꽃은 초롱처럼 생겼다.

금강초롱은 꽃에 깃든 아름다운 전설과 함께 세계적으로 금강산에만 있는 자랑으로 하여 앞으로도 우리 인민들의 사람속에 길이길이 꽃피날 것이다.)

만물상 등정을 마치고 온정각에서 휴식을 가지던 중 방명록이 있어

중국의 소동파 시인이 원생고려국 일견금강산(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이란 말에 중국인도 한국인도 그리던 금강산을 願生金剛山我今見解去(내가 금강산 기행을 해결하고 가노라)고 하였더니, 남선우 성남문화원장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대부분 우리들이 願을 原이라고 써놓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고 가고픈 금강산을 그리다못해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6·25동란 12주년 기념 행사때 정부는 한상익 시에다 최영섭 작곡으로 태너 김화용 성악인이 불러 30여 년간 우리들의 그리운 울분을 삭혀왔다. 그리던 그리운 금강산을 만나면서 백병구 예천 문화원장의 웅단식 무차별 사진찍기, 채규대 노원문화원장의 폭넓은 대인관계는 깊은 인상에 각인되어진다.

## ‘아버지의 고향’으로...

김진미 | 전국문화원연합회 간사



아주 우연히 너무나 좋은 기회로 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간사연수로 금강산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내겐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고 통일이 되기 이전의 북한땅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릴때도 항상 할아버

지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고향은 어디에 무엇이 있었고 어디서 누가 살았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렇게라도 북한땅을 밟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겐 모든 가족들을 대신 고향을 다니오는 기분으로 그저 호기심을 자극했을 뿐이다. 출발하기 전 설레이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

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부러운 듯이 조심하고 많이 보고 사진 많이 찍어 가지고 오라고 부러운 듯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벽동군이란대. 내게는 사실 지명조차도 생소한 곳이기 에 그냥 그런 곳도 있는가보다라는 생각만 하고있었다.

난 매년 5월5일 평북도민의 날 행사를 간다. 이 행사는 평안북도가 고향인 실형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한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 경품추첨이라는 것도 한다. 난 이 행사를 통해 북쪽



이 고향인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딜 가든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한국사람들은 도민의 날 행사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얼싸안고 기뻐하는걸 보면 '이런 것이 한민족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든다. 이번 금강산관광 코스에서도 관리원들과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아! 이런 것이 한민족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저렇게 난 금강산에 다녀왔다. 연수를 준비한 연합회 입장에서 난 일종의 대리인과 같은 직원으로서 연수기간 내에도 끊임없는 핀잔과 칭찬을 들으며 연수를 보냈다. 준비기간 중에 내가 실수하게되어 한사람이 착오가 나면 두 사람이 못갈 수 있다라는 말을 여행사를 통해 들었을 때 실수 없이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나누어준 명찰을 보고 내용이 틀리다라는 말에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내가 가져가 명단은 틀림이 없었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는가? 내 명찰도 틀렸는데...

온정각 휴게소의 식사와 망향대에 이르는 등반, 해금강 모두 새로운 기분과 풍경들로 내게 다가왔다. 새삼스레 아름다움을 말하는건 모든 이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되어 재

차 말하지 않겠다. 내 짧은 글솜씨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기에... 또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미 연재하셨으니까.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을 볼 때 까마득히 보이는 북쪽땅을 언제나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금강에서 통일전망대를 보니 너무나 가깝고도 먼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연수기간동안 별 탈없이 관광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도 문화원의 한사람으로 '아버지의 고향' 북녘땅에 발을 디뎠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감사함이 교차했다.

난 그동안 연재된 기행문들처럼 금강산의 아름다움이나 느낀점 보다는 내가 준비기간동안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다.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나서인지 사진 몇장들과 연수기간동안 친하게 지냈던 문화원간사언니들과 동생들의 우정만이 내게 남아있다. 요즘은 업무상의 전화통화와 가끔 인터넷을 통한 대화, 주말시간을 이용한 만남으로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 금강산에서 해수욕도 할수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도 해수욕할수있게 조금 늦게 갈걸 그랬구나... 부모님모시고 한번 더 갔다올까?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난 이번 연수가 내게 또 한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한차를 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계속 도모이라는 명목하에 북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통일 되었을 때의 이질감들은 어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꼭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하지만 이젠 아니다. 우린 한민족 한핏줄 이기에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물론 나도 이말에 동의했다. 요즘 나를 포함한 젊은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난 북쪽이 고향이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도 실감하지 못했었고 한귀로 듣고 흘릴정도로 지긋지긋하기만 했다. 이런 말을 해도 될만큼 많은 시간동안 다녀온것도 아니었고 많이 겪어본것도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해할수도 있을 것 같다. 고향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한맺힌 아픔을... 빨리 통일이되어 고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문**

**조지훈**(趙芝薰 : 1920~1968) :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수필가·한국학 연구가 / 민속학과 민족운동사에 공헌 / 한국문화사를 최초로 저술 / 주요저서 〈조지훈 시선〉, 〈한국민족운동사〉 등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해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큰 시인이다.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 등 그가 남긴 시집들은 모두 민족어의 보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낙화〉〈고사〉와 같은 시들은 지금도 널리 읊어지고 있는 민족시의 명작들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조지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누구도 훼손하지 못할 만큼 확고부동하다.

매천 황현과 만해 한용운에 이어 조지훈은 지조를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지식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의 시신을 만해가 거두어 장례를 치를 때 심우장에 참여한 것이 열일곱(1937년)이었으니 조지훈이 뜻을 확립한 시기가 얼마나 일찍던가를 알 수 있다.

조지훈은 민속학과 역사학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문화사를 스스로 자신의 전공이라고 여기

었다. 조부 조인석과 부친 조현영으로부터 한학과 절의를 배워 체득했고 혜화전문과 월정사에서 익힌 불경과 참선 또한 평생토록 연찬했다. 여기에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일고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국어학 지식이 더해져서 형성된 조지훈의 학문적 바탕은 현대교육만 받은 사람들로서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넓고 깊었다. 광복이 되자 10월에 한글학회 국어교본 편찬원이 되고 11월에 진단학회 국사교본 편찬원이 되어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국어교과서와 국사교과서를 편찬했고 그 이후 1968년 기관지 확장으로 작고하기까지 조지훈이 저술한 ‘밋의 연구’ ‘한국문화사서설’ ‘한국민족운동사’ ‘시의 원리’ 등의 저서는 한국학 연구의 영원한 명저가 됐다.

조지훈은 진리와 허위, 정의와 불의를 준엄하게 판별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엄격하게 구별했다. ‘지조론’에 나타나는 추상같은 질책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터뜨린 양심의 절규이었다. 일찍이 오대산 월정사 외전강사 시절 조지훈은 일제가 싱가포르 함락을 축하하는 행렬을 주지에게 강요한다는 말을 듣고 종일 통음하다 피를 토한 적도 있었다. 민족문화와 민주정치를 살리기 위해 조지훈은 한 시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해 발언에 대해 이는 학자와 학생과 기자를 버리고 정치를 하려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한 조지훈은 그로 인해 정치교수로 몰렸고 늘 사직서를 가지고 다녔다.

조지훈은 근면하면서 여유 있고 정직하면서 관대하고 근엄하면서 소탈한 현대의 선비였다. 매천이 절명의 순간에도 ‘창공을 비추는 촛불’로 자신의 죽음을 관조했듯이 조지훈은 나라 잃은 시대에도 ‘태초에 밋이 있었다’는 신념을 지니고 초연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 조지훈에게 밋은 저항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녀야 할 삶의 척도이었다. 조지훈은 호탕한 밋과 준엄한 원칙 위에 재능과 교양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대인이었다. **문**

#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제 9 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목적

-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인 각 지방의 전래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존 전승함
-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속문화발전에 기여함

■ 행사개요

- 기 간 : 2002년 10월 16(수)~18일(금)
- 장 소 : 충북 충주시 칠금동 탄금잔디마당
- 주 최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BC
- 주 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상계획

시상구분	훈 격	수상단체 (개인)	시상금(천원)			
			계	상 금	전승보존금	
계		단체 : 22 개인 : 2	56,500	36,000	20,500	
단체 상	종합최우수상	대통령상	1	8,000	5,000	3,000
	종합우수상	국무총리상	1	6,000	3,500	2,500
	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5	각3,500	각2,000	각1,500
	공로상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	2,600	1,100	1,50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1	2,600	1,100	1,500
		MBC사장상	1	2,600	1,100	1,500
	장려상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	1	2,600	1,100	1,500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1	2,600	1,100	1,500
노력상	충청북도지사상	9	각1,000	각1,000		
입장상	충주시장상	1	1,000	1,000		
개인 상	지도상	충주시장상	1	1,000	1,000	
	연기상	충주시장상	1	1,000	1,000	

· 후 원 : 한국예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국문화연합회

· 참가대상 : 21개 시·도(이북5도 포함) 및 시연팀

■ 추진방향

- 행사의 대형화,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심사에 반영)
- 참가작품은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민속원형 재현에 충실
- 공연장소 규모를 감안(잔디마당 22,000여평)해 참가작품 공연준비
- 참가분야(민속놀이, 민요, 농악, 민속무용, 민속극 등) 구분 폐지

## 제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 목적

-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조상들의 멋과 슬기가 담긴 민속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기회 제공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과 협동심 고양

### ■ 행사개요

- 일시 : 2002년 10월 15일(화)
- 장소 : 충북 충주시 탄금잔디마당
- 참가대상 : 16개 시·도 대표 학교
- 주최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 주관 : 충청북도, 충주시
-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국문화원연합회

### ■ 추진방향

- 전국 16개 시·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시·도별로 대표 참가(예술전문 중·고등학교는 가급적 참가 자제)
- 청소년의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신명을 돋우기 위해 경연으로 진행
- 참가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민속예술의 지역적 전통성을 우선함
-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병행 개최

### ■ 시상계획

시상구분	훈 격	수상단체	시상금(천원)		
			계	상 금	전수장학금
대 상(1)	국무총리상(예정)	1	6,500	3,500	3,000
금 상(2)	문화관광부장관상	1	5,500	3,000	2,5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1	5,500	3,000	2,500
은 상(1)	충청북도지사상	1	4,500	2,000	2,500
동 상(2)	충주시장상	1	3,500	1,500	2,000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	3,500	1,500	2,000
장려상(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2	각 3,000	각1,000	각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상	2	각 3,000	각1,000	각 2,000
아리랑상(6)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6	각 2,500	각1,000	각 1,500
계		16	56,000	24,500	31,500



**성삼문**(梅竹軒 成三問 : 1418~1456) : 조선초기 문신, 사육신, 집현전 학사, 어문학 및 음운학자, 한글창제를 위해 요동을 13차례나 왕래하는 등 훈민정음 창제에 공헌

성삼문은 서기 1418년(태종 18년) 충청도 홍주 적동리 노은동(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낳았느냐고 묻는 소리가 세 번이나 들렸다 하여 이름을 '삼문(三問)'이라 지었다고 한다.

성삼문이 39세의 짧은 생애동안 충절과 의리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성삼문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규정하고 단종의 왕위 회복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마침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충절과 의리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그의 가족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고 가산은 몰수되었으니 의리를 지킨 대가는 너무도 컸다.

당시 성삼문도 수양대군에게 협력을 했더라면 부귀영화가 보장되고 자신의 인생도 순탄대로의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삼문은 수양대군의 행위를 정권의 도둑질로 보고 이에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바른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친 것이다. 또한,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바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들 수 있다. 성삼문이 쓴 <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 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언어가 중국과 달라 역관(譯官)이 있어야만 서로 의사 소통이 가능했다. 선대 임금 때부터 이를 위해 승문원(承文院)을 두어 이문(吏文)을 맡게 하고, 사역원(司譯院)을 두어 통역을 맡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왕명에 의해 성삼문은 신숙주와 함께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배웠으니, 이후 요동을 왕복한 것이 무려 13회나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문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위하

여 바친 열정과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기에 앞서 한글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해 보았다. 세종은 1446년(세종 28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한자음을 정확히 알아야 훈민정음을 바로 쓸 수가 있으므로 신숙주를 비롯한 최항, 성삼문 등에게 <동국정운>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즉 <동국정운>은 한자음을 어떻게 훈민정음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연구였다. 이 <동국정운>이 만들어짐으로써 처음으로 한자음을 우리의 한글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성삼문은 당시 언어학 분야의 탁월한 학자였던 것이며, <직해동자습>의 교정에 참여했고, <동국정운>의 편찬에도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의 기초적인 연구를 위해 요동을 13번나 왕래하며 음운연구에 심혈을 바쳤던 것은 그가 남긴 큰 발자취라 하겠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도자는 비록 세종이라 하더라도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준 것은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볼 때, 이들의 한글창제에 바친 공헌은 민족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문**



#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의 방향’ 토론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최 ·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5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한 문화관광분야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의견수렴 및 문화관광정책의 대응방향 정립을 위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중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는 먼저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 한국관광연구원 · 체육과학연구원 · 청소년개발원 등이 심층연구한 문화관광정책대응방향을 종합 · 정리하여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문학분야의 김규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객원교수)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관광분야의 이강욱(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이성두(한국관광협회 사무처장) · 홍재원(현대성우리조트 경영관리팀장), 체육분야의 이한규(체육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 김혁출(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개발부장) · 김창수(한국레저협회 사무총장), 청소년 분야의 이광호(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실장) · 오덕규(한양초등학교 교장) · 손의숙(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팀장) 등 각 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원 4명,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4명, 관련현장종사자 4명씩이 참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건의사항등을 토론 · 발표하였다.

발표된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가시간 증대의 사회문화적 의의

- 주체적인 생활시간의 증가로 인한 개인의 여유 있고 풍요로운 생활로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 관광, 외식, 전통문화산업 등 문화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지역단위의 문화행사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짐으로서 활력있는 문화여건의 개선에 기여.
- 여가시간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여가시간의 문화소비 영향요인

- 문화활동 또는 여가활동은 시간·비용 탄력성이 강하고 그 이외에 가치관, 경험의 유무, 프로그램·시설 접근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개인적인 문화욕구가 강하고, 자유여가시간이 증대하더라도 단 시간 내에 문화소비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문화소비 희망층이 많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소비증가의 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 많은 국민들은 여가시에 문화활동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희망여가 활동순위(평일기준) : 여행(10.7%) / 예술감상(8.3%) / 산책·운동(8.3%) 등
    -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민문화향수 실태조사」, 2000

###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여건 변화

-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고, 가계에서 여가오락에 사용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활동비용에 대한 소비 우선순위를 점차 높게 두는 경향이 팽배되고 있음. 또한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 가계지출중 교양오락비 점유율은 13년 사이에 35%나 증가 : '87년, 3.92% → 2000년, 5.28%
    - ※ 통계청, 2000년 조사
-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주말에는 여행, 스포츠관람이 늘어나고, 평일에는 여행, 등산·낚시, 쇼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경우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자유여행, 아르바이트, 수련활동 참가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됨.
  - ▶ 주말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순위 : 생활체육·산책(22.7%) / 여행(21.5%) / 가사·독서(10.9%) 등
    - ※ 체육과학연구원, 2001년 7월
  - ▶ 청소년 주말생활시간 희망 순위 : 자유여행(79%) / 아르바이트(61.1%) / 수련활동 참가(40.6%) 등
    - \* 한국청소년개발원,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식 조사, 2001년 10월
- 생활문화시설이 늘어나고, 문화예술단체가 증가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생활가까이에서 문화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음.
  - ▶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지방문화회관 등의 생활권문화시설은 1998년 701개에서 2001년에 832개로 늘어났음(연평균증가율 6.2%)

**예상되는 새로운 경향**

- 당장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간소비형, 관람형, 프로그램 모방형 여가 형태로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창조형, 프로그램 제작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문화와 연계시킨 소비가 증대할 것이며, 특히 외식, 건강, 미용, 스포츠, 관광결합, 가족동반, 대중문화 우선적인 여가소비가 증대될 것임.
- 문화, 관광, 생활체육, 청소년 대상 등 제 분야의 시설,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양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임.
  -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분야 지출은 2조4천억원(2005년)으로 예상되며, 경제파급 효과는 15만명의 고용효과와 3조8천억원의 산출효과, 9천억원의 소득효과가 예상됨
  - ※ 한국관광연구원, 2001년
- 생활권 접근 가능한 문화활동과 원격 문화활동, 짧은 시간단위로부터 2일단위 프로그램, 실내 및 야외 프로그램, 고가 및 저가 프로그램, 유료 및 무료 프로그램, 주간 및 야간프로그램 등으로 다변화 될 것임.

**예상되는 문제점**

- 문화소비의 격차가 발생되어 문화소비 소외층이 발생할 것임
  - ▶ 예컨대 대도시, 여유층, 정규근로자, 남자, 미혼자들이 대량 참여하고 그 반대층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것임.
- 자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경마, 카지노 등에서의 시간소비

및 사행성 오락이 심화되는 불안정적 소비가 발생될 우려.

- 여가희망자에 비하여 생활권에 인접하는 문화체육시설, 테마형 관광시설, 중저가 가족휴양용 숙박시설, 청소년야외활동 시설 공간 등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추가근무 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이 예상되며, 문화활동을 지원할 문화축매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여유의 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의 빈부현상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음.

**대응전략**

- 여가중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5일제의 취지, 각 생활단위(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에 유의하여 상호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은 국민들의 문화적 여가활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여 여가시간이 낭비로 흐르지 않고, 지식정보사회의 창조적 문화역량 축적 계기로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함.

**외국의 여기문화정책 사례**

**영국의 '새로운 청중 프로그램'**

- 수요자 위주의 문화예술정책
  - ▶ '98년 문화매체체육부가 영국예술진흥

원의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0개의 지역예술 위원회와 공동협력 추진  
 - '99~2000년도 영국전역에서 6개영역  
 150여개 사업 추진

▶ 기존 정책의 공급자위주의 문제 개선

○ 새로운 청중 프로그램

▶ Arts Connect(25개)

-교통 및 기술을 이용, 지역 및 계층별 문화예술 장애를 극복하려는 사업

- 예술참여가 어려운 집단 및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접근 제고에 중점

예시) "The Good Gallery Guide"(100개 미술관이 전시와 창작이벤트, 순회사업 전개)

▶ Arts Extend(17개)

-예술을 평생교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젊은층이 주된 사업 대상

예시) "Music in your life"(젊은층의 클래식 음악 향유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 Arts Plus(17개)

-국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토록 예술 이벤트사업 전개

예시) "Beats, Bytes & the Big Screen"(6주 동안 도시를 순회하는 영화 페스티벌)

▶ New Contexts(17개)

-제도권 예술기관에 익숙치 않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각종 클럽 및 페스티벌 형태로 예술에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지원

예시) "Home works"(18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창작 활동 지원)

▶ Sample the Arts(39개)

-새로운 혁신적인 홍보 및 공공마케팅을 통해, 폭넓고 대량의 예술 사업을 모든 연령층에 향유케 하는 사업

예시) "The Digital Art Education

Resource"(현대시각예술교육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물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무료 온라인 자료화)

▶ Regional Challenge

-지역예술위원회의 직접 운영사업, 지역 사회교육을 전통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에 의해 운영

**호주의 「Active Australia」 프로그램**

○ 신체운동에 관한 활동기준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 형성과 자원 조달에 중점

○ "Active Australia Day" 등 이벤트행사(시설무료 개방, 달리기 등 시민참여 생활체육 행사 개최 등), "Active Australia Awards" 등 포상제도 마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클럽관리프로그램

**해외 사례의 시사점**

○ 획기적인 정책 전환보다 기존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여가시간 확대를 건전한 문화레저 활동으로 유도하는 정책 추진

○ 문화예술 지원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

▶ 가족단위, 체험형, 자기계발형, 커뮤니티 지향형 등 새로운 패턴의 여가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화레저 시설 및 운영을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

▶ 문화레저 매니아 활동지원 및 학교와 문화시설간 연계 강화 등

○ 단순한 삶의 질 제고를 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 창의력 증진에 노력

▶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자율적인 청소년활동 권장 등

## 바캉스 떠나는 ‘유두’와 개고기 먹는 ‘삼복’

유두(流頭)는 음력 6월 15일로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동류두목욕은 ‘동쪽의 시냇가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다’는 의미다. 유두는 이 말의 준말이다. 동쪽은 청(靑)이자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문집 ‘김거사집’에 신라 동도(지금의 경주)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기록은 ‘중경지’ 권2 풍속조에도 보이고 ‘고려사’ 명종15년조에도 나타난다.

정월 대보름(1월 15일)과 한가위(8월 15일), 시월 시제(10월 15일)등과 마찬가지로 보름날에 행해졌던 유두일은 6월의 큰 명절이자 여름의 세시풍속으로 내려져 오고 있다. 이를 소두(梳頭), 수도(水頭)라고도 표기했는데 수도란 물머리로 오늘날 경상도 제주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물맞이’를 뜻한다.

이처럼 유두날에 맑은 물을 찾아 몸을 깨끗하게 하면 상스럽지 못한 기운을 쫓고 여름에 더위 또한 먹지 않는다고 믿어졌다.

이 날은 일가 친지들이 산천의 계곡이나 정자(亭子)를 찾아 맑은 시내나 산간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은 후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하루를 보낸다. 풍류를 즐기는 문인들도 술과 안주를 마련해 자연을 벗삼아 하루를 보낸다. 오늘날의 바캉스다. 이것을 당시에는 유두연, 즉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않고 질병도 물리친다고 믿었다.

유두연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농가월령가>에 기록이 나온다. 고려 가요 ‘동동’에도 6월 보름을 노래한 구절이 있다.

또한 한여름인 유두일에는 수박·참외등 햇과일과 함께 국수와 떡을 만들어 사당(祠堂)에 제(祭)를 올린다. 지금은 온실재배가 발달해 수박·참외를 아무 계절에나 맛볼 수 있으나 당시에는 여름에만 즐길 수 있었던 과실로 귀했다. 이같이 유두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유두면·밀전병·수단·건단등 각종 음식과, 벼·콩·조등 산물을 예를 다해 조상께 받치는 일을 ‘유두날 새 것을 올린다’는 뜻의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한다. 이 때 사당에 올리는 벼와 콩·조를 각각 유두벼·유두콩·유두조라고 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참외나 기다란 생선 등으로 음식을 장만해 논외 물고와 밭 가운데 차려놓고 제를 지낸 다음 자기 논·밭에 하나 하나 묻음으로써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두일에 해먹는 음식으로는 유두면, 수단, 건단, 연병이 있다. 유두국수를 먹으면 장수하고 더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먹는다. 이것 말고도 편수·복숭아 화채·깨국탕·어선·어채·밀쌈·구절판등이 있다.

## ■ 유두 음식



떡수단

### ● 수단(水團), 건단(乾團)

찹쌀가루를 찌서 구슬 같이 작고 흰 떡을 만들어 꿀물에 넣고 얼음에 재워 두었다가 제사도 지내고 먹기도 했는데 이를 수단(水團)이라 한다. 또한 얼음물에 넣지 않는 것을 건단(乾團)이라 한다. 때로는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한다.

### ● 유두면

밀가루로 특이하게 구슬처럼 만들어 오색으로 물들인 후 세 개씩 포개어 색실을 꿰어 몸에 차거나 문설주에 걸어놓으면 잡귀 출입을 막고 재앙을 막는다고 했다. 참밀의 누룩으로 만들면 ‘유두국’ 이라고도 한다.



보신탕

### ● 연병(連餅)

밀가루를 반죽해 판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문질러 늘려 만든 다음 기름에 튀기거나 또는 깨와 콩을 문혀 꿀을 발라서 만든 떡을 말한다.

### ● 상화병(霜花餅)

밀가루를 반죽해 콩이나 참깨로 소를 만들어 넣어 찢은 것을 상화병(霜花餅)이라 한다.

## 【삼복이란】

삼복(三伏)이라는 것은 초복·중복·말복을 말한다. 1년 중 가장 더운 때다. 초복은 하지가 지난 후 세 번째의 경일(庚日)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다. 이 때문에 삼복더위란 말은 가장 더운 여름 날씨로 통용된다.

복중에 자주 찾는 음식으로는 삼계탕과 보신탕을 들 수 있다. 보신탕은 옛날에 구탕(狗湯)이라 했는데 동국세시기에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팔죽이나 밀전병 수박을 먹기도 했으며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 그런데 팔죽을 쑤어 먹은 것은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영양섭취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재앙을 물리치려는 벽사적인 의미도 있다. 또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속신이 전해져 온다. 이러한 속신 때문에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았고 만일 초복날에 목욕을 했다면 중복날과 말복날에도 목욕을 해야 몸이 여위지 않는다고 믿었다.

특히, 복날에는 벼가나이를 한 살씩 먹어 다익은벼의 줄기마다 마디가 셋 있게 된다고 믿었다.

한편 ‘복날에 비가 오면 청산 보은의 큰애기가 운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복날에 비가 오면 대추 농사로 유명한 보은의 농가에 흉년이 들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결혼에도 차질이 온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명곡지역)은 우리나라 동남단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에서 약 30km 울산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인구 약 5만의 이 작은 도시는 삼한시대에는 우산국으로, 신라시대에는 삼양주에 속하는 등 1914년에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확정됐다.

지역적으로 양산 통도사와도 근거리에 있어 옛부터 불교문화권에 속해 있다. 주민들의 불교 의식이 강하고 千聖山과 大雲山의 水系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해 있다. 또한 웅상읍은 회야강 상류지역의 풍부한 수원과 주변 경지가 넓어 곡식이 풍부하게 생산되며 옛부터 재해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시대적 배경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경사회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각 호마다 경작지의 확대 또는 단기간 내 많은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협동·공동작업이 요구됐으므로 후일 농청(農廳)장원(壯元) 놀이라고 하는 농민 생산놀이가 발전하게 되었다.

### 농청원의 구성과 역할

농청원의 구성은 노동력을 가진 성인 남녀로 집집마다 1명씩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여기에는 좌상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보감독, 수총각 등의 소임자가 있었고 직책의 선발은 대체로 민주적 방식인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좌상은 농청의 고문 역으로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어른이 맡고, 행수는 농청의 代表者이며 들임사는 들의 모든 일을 농청원에게 알리는 역할이고 영각(통수)을 붙여 농사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각을 알리는 일을 했다.

수총각은 共同作業을 통솔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았으며 마을에서 가장 유능한 농사꾼으로 나이 많도록 장가를 못간 총각이 맡았다.

방목감독은 家畜의 放牧을 감시하고 가축이 남의 作物에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배상의 조정역할을 했고, 보감독은 보리보수 및 用水의 분배에 관한 일을 맡았다.

### 농청장원 놀이의 발전 과정

- 농청놀이는 논농사 및 보리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모심기를 마치고 논매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6월 초순에 하루 휴일을 정하여 나다리 먹기(타 지방의 세사연과 유사한 行事)를 행한다.

이 날은 당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농청원들이 모두 모여 농신제를 먼저 올린 뒤 좌상이 회의를 진행해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등의 농청 간부를 選出하고 농청원들의 논매기 共同

作業順序, 가축의 방목 방법 등을 결정한다.

특히 16~17세에 이르는 청소년 중에서 평소 돌 들기와 농사일에 어느 정도 익숙한 자를 골라 새 품앗이꾼으로 인정하는 주먹 돌음을 한다.

이런 절차는 농청원의 입문례로서 비로소 온전한 장정으로 인정받은 자는 술 한 동이와 안주를 마련해 농청원들한테 대접하는 예를 갖춘다. 이 때에 他地에서 이사 온 사람들도 술과 안주를 내어 농청 가입을 허락받는다.

- 농청에서는 원래 모심기, 논매기, 길쌈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모여서 일을 하면 능률이 올랐다. 이와 같이 協同作業을 하던 것이 後代로 내려오면서 대부분 품앗이로 일을 하게 되었고 망시 논매기는 일이 힘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농청 모임에서 協同으로 하였



김영돈(양산문화원 부원장)

文化財  
熊上

# 農廳壯元놀이

다. 몇 차례 눈을 매고 망시 논매기를 해 보면 그 농가의 그 해의 농사 豐凶작을 가늠하게 되는데 이 때 일부러 농사가 잘 된 대농가의 눈을 맨 뒤로 미루었다가 망시 논매기로 한다.

- 망시 논매기를 마치고 나서 장원 농가로 선정하고 그 집의 상머슴을 소 또는 목말에 태우고 영각을 불며 豊작을 치면서 주인 집으로 간다. 주인은 술과 안주로 농꾼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온 동리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한 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를 며칠 연이어 행하며 벼 수확기 季節의 儀禮를 마친다. 이 놀이를 농청장원놀이(農廳壯元놀이)라 하였다.

- 이러한 농청장원놀이의 共同作業과 의례는 보리타작, 모심기, 논매기, 추수 등에 풍악과 가락으로 면면히 이어오다가 오늘날 農業 機械化時代에 쇠퇴해 가고 있으나 60년대까지 이 곳 웅상읍 명곡마을을 중심으로 잘

전승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이 급속히 도시화 되면서 장수한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마을의 敬老堂에 모여 農謠를 부르며 옛 일을 회상하는 過程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농사민속 놀이를 다시 한번 즐기며 後代에 남기고자 하는 뜻이 모아져 60~80대의 老農들이 농청원의 共同作業과 農耕儀禮를 놀이화하여 그 이름을 웅상농청장원 놀이라 하였다. 또 구전되어 오는 가사를 모두 수집풍악과 놀이로 정리, 제 20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 최우수상, 제 40회 한국 민속예술축제(99. 9. 15.~9. 17.)에서 종합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그 구성내용과 소리의 가사 내용을 소개한다.

## ● 놀이내용

- 제일 첫번째 마당은 남정네들이 모를 심을 논에서 거 뒤들인 보리를 타작하는 도리깨질을 하면서 보리타작 소리를 선·후 창으로 부르고 그와 동시에 마을 아낙

네들은 구성지게 모찌는 소리를 하면서 모를 찌고 이어서 교환창으로 모심기 소리를 부르면서 줄모를 심는다. 그러는 사이 남정네들은 타작한 보리를 소로 옮기기도 하고 썬레질도 한다.

- 두번째 마당은 당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다리 먹기를 하는데 이 때 祭物을 차리고 농청의 임원들이 당산신께 豊年을 기원하는 농신제를 올리고 좌상을 중심으로 농청회의를 열어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보감독, 수총각 등 소임을 선출하고 청소년 중에서 품앗이꾼으로 인정하는 주먹돋음을 행하고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온 사람들도 신입농청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친다. 농청원들은 품앗이꾼 입문자와 신입농청원들이 준비한 술과 안주를 나누어 마시며 흥겹게 논다.

- 세번째 마당은 소서 후 첫 용날에 각 農家에서 아낙네들이 밀떡(또는 수수떡)을 논에 이고 가서 겨름(삼대)에 꽃아 물꼬에 세우고 두 손을 비비며 풍재, 수재, 충재 등을 막아 豊年이 들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용신제를 올린다.

- 네번째 마당은 남정네들이 모를 심어 놓은 논으로 가 망시논매기(마지막 세벌 논매기)를 하는데 논매기 소리를 선·후 창으로 부른다.

- 다섯번째 마당은 망시논매기를 마친 농가를 장원농가로 선정하고 그 농가의 상머슴을 목말에 태워 주인집 대문 앞으로 가 지신밧기 형태의 대문밧기를 하면 주인은 농청원들을 반갑게 집안으로 안내를 하는데 마당으로 마당밧기와 술귀풀이를 신명나게 하며 마지막으로 칭칭이 풀이로 신명을 푼다.

## ● 놀이의 특색

- 농사일의 고단함과 협업의 흥겨움, 의례의 엄숙함과 뒷풀이의 떠들썩함을 거쳐서 壯元놀이에서 고된 勞動의 결과에 대한 흐뭇함과 기쁨을 신명으로 풀어 버리고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農村情緒가 담겨진 농청의 세시적 구조를 잘 표현하려고 했다.

- 이 놀이에 참가하는 구성원 모두가 명곡마을 주민들로만 구성되고 특히 소시적 직첩 농청원이었던 사람과 한평생 농사 일을 직접 한 60~80대 노인층이 주축이 되어 있어 호홉이 잘 맞고 순수 자체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놀이진행 과정이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풍물꾼과 품앗이꾼 입문자를 제외하면 이 놀이의 순수 경험자들만으로 구성되어져 놀이과정의 作業, 儀禮, 놀이 등 모든 행위 동작이 실경험자의 몸에 배인 것으로 놀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원형 재현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놀이꾼들은 정리된 장단과 가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경상도 매나리조의 민요를 부른다. 특히 '오하 저리여'라고 뒷소리를 받는 '저리여 소리'는 타지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지역의 특징적인 논매기 소리라 할 수 있다.

- 농청에서 행하던 일을 민속놀이화하여 연회를 하지만 놀이꾼들이 가식적이고 규격화 된 무용적 동작을 수용

농청원의 구성은 노동력을 가진 성인 남녀로 집집마다 1명씩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여기에는 좌상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보감독, 수총각 등의 소임자가 있었고 직책의 선발은 대체로 민주적 방식인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할 수 없는 고령층이어서 모든 동작이 오히려 우리나라 傳統的 農耕社會에서 이루어진 농사꾼들의 언행과 동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놀이에 필요한 소품들은 거의가 놀이에 참가한 놀이꾼이 자기 집에서 직접 쓰던 것을 가지고 나오거나 손수 만들어 나온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 ● **응상 농청장원놀이**

#### ● 모심기

주생업인 벼농사 짓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고장에서는 주로 男性들이 모심기를 하였다 하나 梁山地域의 모심기는 주로 여성집단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7년의 戰禍와 그 어느 고장보다 슬한 수난사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老弱者와 女性들이 모여서 集團協業을 한 것이 이 고장의 모심기 풍속이 된 것이며 노래로는 경상도 교창식 모 노래의 본고장이며 여인들의 서러움과 恨들이 한데 뭉쳐서 애절하고도 구성된 곡조와 가사가 되어 불리워진 노래가 이 고장의 모심기 노래라 하겠다.

#### ■ 긴 모씨는 소리

한강에다 모를 부어 그 모찌기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 난감하네

만장 걸은 이모자리 장기판 만치 남았구나  
장기야 판이사 좋다마는 장기들 이가 그누군고

#### ■ 잦은 모씨는 소리

밀치라 닥치라 모도야 잡아 흠치소  
영해 영천 초목에 호미야 손도 놀리소  
조루자 조루자 이모자리로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각시빚짐을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영감쌈지로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시어마이 며느리로 조루자

#### ■ 모심는 소리

이물끼 저물끼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은 어데 갔노  
문에야 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 방에 놀러갔다  
농사야 법은 있건마는 신농씨가 없을 소냐  
태고때 시절이 언제자 꼬신농씨로 이제 찻노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 커서 환생할래  
이달 크고 훗달 커서 내 훗달에 열매 연다  
해 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이 연기 나는데  
우리아 님은 어데가고 연기 날줄 모리는고

#### ■ 쓸쓸이곡(마칠 때)

쓸쓸이 어데갔노  
쓸쓸이 산에 갔다  
있는 데를 알았으니  
오겨들랑 보고가소

#### ● 보리타작(잘개타작)

보리타작은 일하기가 까다롭고 힘든 노동으로서 목도리개가 앞에 서서 내려치면 종도리개는 들어 올리고 하는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성을 가지며 여기 때러라 저기 때러라 하는 作業指示的 매김구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가사

들이 나오게 되며 一時的인 고통을 잊게 하고 작업의 흥을 돋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 보리타작 소리

어여차(선창)	~어여차(후렴)
어게쳐라	"
저게쳐라	"
요놈의 보리가	"
아전의 보린가	"
도리깨 밀을	"
살살기네	"
헤야 소리	"
어잘한다	"
때릴때는	"
지트랑 밀에	"
바람도 넣고	"
어깨춤도	"
추와가며	"
죽을판살판	"
때리보자	"
보리고개	~어여차(후렴)
비뿔어온다	"
내일모레	"
장매지고	"
이보리를	"
씩히며는	"
우리 식구	"
열들인데	"
살은입에	"
거미줄 칠라	"
	넘어간다/넘어간다
소리가 빨라질 때	엇쥬/엇쥬
	어쳐러/저쳐러
이하 생략(사투리가사 그대로 인용)	



● **논매기**

양산(웅상) 지역에서는 논매기를 한 해 3번 하는데 아시매기(초벌), 두벌매기, 망시매기(세벌)로 나누어지며 땅이 부드러운 관계로 호미를 쓰지 않고 대나무로 만든 고동을 각 손가락에 끼고 논을 매었으며 주된 논매기 소리로는 어산영(어사용)으로 가난한 농군들의 신세 한탄가이며 매김구는 한없이 슬픈 곡조들이다. 특히 ‘오하 저리어’의 논매기 소리 후렴구는 양산에서 自生된 소리로 獨立의인 文化의 뿌리를 엿볼 수 있다.



**용신고사**

● 이는 모를 심은 후 집집마다 떡을 해 가지고 나와 자기 논물꼬에 꽃으며 고사소리를 한다. 그냥 말하듯이 읊조리며 웃논에 용신님네요, 아랫논에 용신님네요, 풍재, 수재, 충재, 한재 다 막아주고 이색이는 말로 하고 단으로 섬으로 나게 해주시오. 신님네요, 용신님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용신에게 손을 빈다. 보통 밀떡을 하여 재랍 꼬챙이에 끼워 논에 다 꽃아 놓는 것을 아이들이 빼어 먹곤 했다.

용신고사는 심은 모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 탈없이 쭉쭉 잘 자라 알곡을 맺기를 소원하는 祈願儀式이다.

특히 논농사란 제때에 알맞은 물의 供給이 풍년을 좌우하게 되므로 용신이 이러한 일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農耕社會의 思想을 엿볼 수 있으며 논농사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다.



■ **논매기 소리(어사용)**

불같이 더운 날에 미갈이도 지선 논을	(후렴)오하 저리어
논매기도 되다한데 소리조차 왜말이오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
내년 삼월 돌아오면 그 꽃 다시 피건마는	”
우리 인생 한번가면 돌아올줄 모리라고	”
산천초목에 붙은 불은 만민간이 끄건마는	”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절꼬	”

■ **논매기 소리(쌘싸기)**

오하 쌘싸자	(후렴) 오하 저리어	
기장 원님은 미역쌘 싸고	”	] 논을 다 맨 후 두령가로 나갈 때 칭칭이 소리 를 한다
동래 원님은 곤피쌘 싼다	”	
양산 원님은 나물쌘 사고	”	
언양 원님은 미나리쌘 싼다	”	
밀양 원님은 곤달비쌘 싸고	”	
울산 원님은 멀구쌘 싼다	”	

불같이도 더분날에	치지방 칭칭나네
미갈이도 지선 논을	”
다 매었네 다 매었네	”
금년 농사는 대풍이요	”
부모님 봉양을 하여보자	”
(이하생략)	

● **용신고사 소리**

웃논에 용신님네요, 아랫논에 용신님네요  
 올 농사 참농사를 짓거들랑 우짜던동  
 풍재, 수재, 충재, 한재 다 막아주고  
 신농씨 농법으로 지은 농사 이색이는 말로 하고  
 단으로 섬으로 나게 하고  
 앞에 노적, 뒤에 노적 가리거리 가리주소  
 용신님네요, 용신님네요, 용신님께 비나이다.

● **농사 장원놀이**

한 해의 마지막 논매기를 마치고 나면 일년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기이고 그 해의 凶豊작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農事가 잘된 地主들은 자기집 머슴들과 농청원(일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답하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날 망시논매기를 마친 집 상머슴을 농사 장원 하였다 하여 농청원들이 그 집 머슴을 소에 태우고 영각을 불며 풍물을 치고 들어가 농사 장원한 집에서 마련한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한 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춤을 추며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를 하여왔다.

■ **장원질(길)소리**

상머슴(안마실 마부여 니말 좋다고 자랑마라)  
자적매소리를 하고 풍물을 울리고 만다

■ **장원농가 대문앞에서 시위소리**

선창(에-라-) 후렴(쉬-아-)  
주인 주인 문여소 우리 농군 더가요(반복)

■ **장원농가 마당에서 음식을 들기전 지신밟기풍의 축원소리**

이 덕이 누덕이고 주인 마누레 인심가  
이 덕이 누덕이고 우리 동무 발덕가  
풍물치는 농군들아 어서 치고 술묵자  
미역국에 짐나고 조피국에 땀난다

■ **술 먹을 때(술귀풀이)**

어이어루 술귀야 술귀 자신을 놀리부자  
이 술이 술 아니라 이슬받은 술이로다  
한잔술에 먹고 나니 없는 흥이 절로난다  
이 맥에 가실하면 천석만석 나누소  
부귀영화 재수대통 만대유전 하옵소서  
잡귀 잡신은 물러가고 만복수복은 요리로

■ **술은 먹고난 후 - 파연곡 칭칭이 소리**

**느린 칭칭이 소리 : 서처자 노래(중략)**

남산밑에 남대롱아 (후렴) 아하 칭칭나네  
서산밑에 서처자야 " "  
나물캐러 안갈라나 " "  
나물캐러 가자시네 " "  
첫째닭 울어 밥을 먹고 " "  
둘째닭 울어 집을 떠나 " "  
셋째닭 울어 앞새가서 " "

올라가면 울고사리 " "  
내려오면 늦고사리 " "  
아검자검 꺾다보니 " "  
일낙서산에 해 떨어지고 " "  
나물 보를 이고지고 " "  
남대롱 집으로 이사를 간다 " "

■ **빠른 칭칭이 소리**

치지랑 칭칭나네 (후렴) 치지랑 칭칭나네  
만장하신 여러분들 " "  
칭칭이 후렴을 하여보소 " "  
여화세상 벗님네요 " "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 "  
이 세상에 나온 사람 " "  
젊어서러 일 많이 하고 " "  
늙어 평생에 잘 살아보세 " "  
살고 지고 살고 지고 " "  
천년 만년을 살고 지고 " "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 "  
이때 안놀면 언제 노노 " "  
여화 세상 벗님네요 " "  
또 한 말씀을 들어보소 " "  
이 세상에 나온 사람 " "  
누의 덕으로 나왔는고 " "  
아버님 전 뼈를 벌고 " "  
어머님 전 살을 빌어 " "  
이 세상에 나온 사람 " "  
효도하세 효도하세 " "  
만장하신 여러분들 " "  
건강하게 오래 살고 " "  
양산 통도사로 놀러오고 " "  
다음 기회에 또 봅시다 " "

# 취 화 선



배우 최민식, 안성기, 유호정, 김여진, 손예진 |감독 임권택|각본 도올 김용옥, 임권택 |제작·기획 이태원

강민철 [domingo@cultureplus.com](mailto:domingo@cultureplus.com)

'칸'으로 간  
장승업!  
한국문화소개  
'축개제'

조선시대 말 천재화가 장 승업(張承業, 1843~1897)의 일대기를 담은 '취화선(醉畵仙)'이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55년 동안의 칸영화제 '무관(無冠)의 한'을 풀게 됐고 임권택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장군의 아들' '서편제' '태백산맥' '춘향전' 등 한국적인 소재와 영상을 고집해온 임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려한 한국의 미를 유감없이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예술가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조선말의 거리 풍경과 역사적 사건도 가미해 무게와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1850년대, 청계천 거지소굴 근처에서 발길질을 당하고 있던 소년 승업(최민식)을 우연히 개화파 선비 김병문(안성기)이 보고 구한다. 승업은 김병문에게 몰매를 맞게 된 내력을 그림으로 그려 보인다.

김병문은 그런 승업의 재주를 눈여겨 본다. 5년후, 김병문은 우연히 지전에 들렀다가 승업을 다시 만난다. 그런 승업의 재주를 아까와한 김병문은 승업을 역관 이응헌에게 소개해 준다.

김병문은 승업에게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를 추구할 것을 독려하고 선대의 명화가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라는 뜻에서 오원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김병문은 평생토록 승업의 조연자로 뒤에 서 있었다.

승업은 이응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중국 그림들을 한번 보면 그대로 모사하는 솜씨를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한다.

승업은 또 이응헌의 여동생 소운(손예진)에게 한눈에 반해 버리지만 소운의 결혼으로 끝나고 화명이 높을 즈음 병을 앓던 소운이 죽어가며 자신의 그림을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 소운처럼 외로운 모습을 한 학 한마리를 그려준다.

그런 한편 진정한 자기만의 화풍을 개척하지 못해 늘 술에 빠져살던 승업은 천주교 박해로 몰락한 양반 출신 기생 매향(유호정)과 만나 인연을 맺는다. 매향은 승업이 그려준 그림에 '매화는 향을 팔지 않는다'라는 제말을 써넣으며 사랑을 나누지만 계속되는 천주교 박해로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다. 매향은 먼 훗날까지도 승업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승업이 더 높은 예술의 경지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당대 사대부치고 승업의 그림 한점 소장하지 않으면 사대부가 아니라고 할 만큼 승업의 화명이 드높자 궁궐에서 불려 어명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된다.

하지만 오로지 술에 취해야 흥이 나고 그 흥에 취해서야 신명나게 붓을 놀리는 기질을 이기지 못해 궁궐을 도망쳐 나온다.

화조(花鳥)나 산수(山水)나 인물(人物) 할 것 없이 두루 빼어난 재주를 갖추고 있었지만 남과 다른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산다.



그는 매향을 찾아 다니다 제주도 갯벌에서 우연히 반대 파의 눈길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백발이 다 되어 버린 스승 김병문을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한다.

여기에 병인박해,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오원의 인생과 그림에 영향을 미친다.

승업은 한 동학꾼으로 부터 '양반한테 붙어사는 기생충' 이란 소리를 듣고 고뇌한다. 여기저기를 떠돌던 승업은 어느 가마터에서 들어가 그림을 그려주며 생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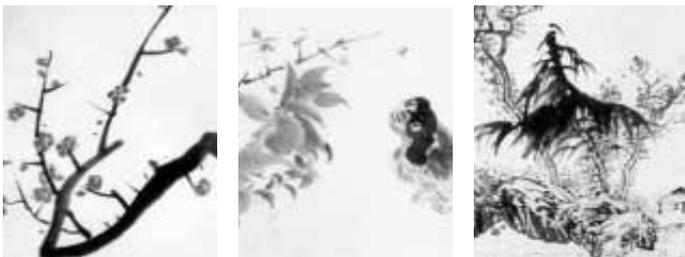
영화는 어느날 승업이 도자기를 굽는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가마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뒷모습으로 끝난다.

'취화선' 의 가장 큰 매력은 빼어난 한국적 영상미에 있다. 하늘을 새까맣게 수놓는 새떼와 드넓은 평야, 눈발 날리는 갯벌 등 저기가 어딜까하는 궁금증이 드는 곳들이 스크린에 가득 펼쳐진다.

여기에도 병인박해(1866년) · 갑신정변(1884년) · 동학농민운동(1894년) 등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자막으로 소개돼 보는 이로 하여금 다큐멘터리적 느낌을 들게 하는가 하면 간혹 아역을 비롯한

배우들의 대사 하나 동작 하나가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흑무겁고 지루하게만 생각될 수 있는 영화분위기를 적당한 수위로 조절한다.

이번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외국인들로 부터 찬사를 받은 취화선이 단순히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는 문화 축매로서 더 큰 성공을 가져오기를 기대해 본다. **문**



# 축제의 의미에 담긴 주민과 교육

## 1) 왜 축제가 주민의 교실인가?

요새는 놀이판이라는 말보다 축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축제(祝祭)란 말은 서양의 <festival>을 옮긴 말이다. 어떤 때는 사육제(謝肉祭)란 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 역시 <carnival>을 옮긴 말이다. 고을 정서와 정신을 바탕에 두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판은 외래어로 토를 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라고 하느니 보다 무슨 놀이 무슨 놀이 등으로 하는 편이 더욱 감칠맛이 나리라 싶다.

지방자치제가 터를 잡은 뒤로부터 고을마다 저마다의 정서를 살리는 다양한 축제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고을마다 축제를 관광 차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축제정신은 우리네 놀이문화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려는 경향이 짙어 보인다. 축제를 관광거리로 삼는 것은 부수적인 소득이고 축제의 진정한 목적은 한 고을 주민이 이웃이 되게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고을 주민을 골목 이웃이 되도록 하자면 축제보다 더 좋은 교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네 옛 풍습은 달마다 명절을 두고 마을마다 형편에 맞는 놀이판을 벌여 이웃이 되는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생활을 나누게 하였다.

1970년대 한 때는 새마을운동이 한 색깔을 띠고 생활개선 운동이라는 뜻을 내걸고 방방곡곡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은 가난을 극복하려는 경제적 운동이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 공통목표가 뻤었다. 한결 같은 취지와 목표를 지니고 전국이 일제히 어떤 운동을 벌인다면 그런 운동은 결코 축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축제는 한 고을의 독특한 얼굴을 갖고 그 고을 주민의 정서를 서로 나누어 갖게 하는 흥겹고 즐거운 놀이판이 되어 주민을 한 이웃이 되도록 애향심을 모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을 단위로 열리는 축제는 고을 주민을 이웃이 되게 하는 정서와 정신을 가르쳐주는 교실이 된다.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설악산으로 놀러간다. 가는 길이 여럿이지만 가을에 설악산으로 갈 때면 반드시 나는 양평을 거쳐가는 길을 잡는다. 양평 <허수아비축제>란 것 때문이다. 가을철 벼가 익기 시작할 무렵 양평 고을을 지나쳐 가면 굽이굽이 길가에 줄줄이 늘어선 허수아비들이 재미있는 인상을 짓고 다양한 색깔로 옷을 차려 입고 <허수아비축제>라는 광고판 앞에서 <메뚜기 잡으러 오세요>라며 가을 바람에 흔들거리며 나그네들을 초대한다.

그전의 양평은 거쳐 지나가는 덩달한 고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허수아비축제> 때문에 양평에 대한 호기심도 일고 호감도 겹쳐 두세 번은 멈춰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고 얼마라도 양평에다 여행비를 쓰고 가는 편이다. 양평이란 고을에 대한 이런 감정은 <허수아비축제>를 개척하려는 양평의 정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어느새 양평은 내 이웃이 된 셈이다.

한 고을에 산다는 것은 여간한 인연이 아니다. 한 고을에서 서로 모르고 지낸다 하더라도 같은 산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고을 주민 모두가 이웃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고 한 고을에서 살기가 쉽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웃이라는 정서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놀이판만 한 것이 없음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달마다 하나씩 들어 있는 명절을 떠올리면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스레 고맙다.

옛날은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고 하면서 힘든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서로 이웃 정을 쌓으면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사회로 바뀌면서 모두 외딴 섬처럼 이웃하고 살면서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처럼 산다. 이웃은 시골 마을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웃이 이루어지면 범죄도 막을 수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정이 생겨 서로 돕고 사는 인심이 생기는 법이다. 이러한 이웃 인심을 살려내려고 옛날에는 달마다 명절을 정해 놀이판을 벌였다.

우리네 놀이 풍속을 되살려 고을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일구어 가면 고을의 축제는 왜 사람들이 이웃과 정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를 체험하게 하는 현장의 교실이 될 것이다. 축제를 통하여 이웃으로 묶어주는 주인정신이 돈독 해지면 질수록 축제는 그만큼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을 주민에게 심어준다. 그러므로 축제보다 더 좋은 주민교육의 현장은 없다.

## 2) 왜 축제가 고을의 개방인가?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환상의 섬, 소록도라는 제목을 보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 들어가니 녹동청년회의소와 녹동청년회의소 특우회 주관으로 녹동바다불꽃축제가 열린다는 광고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왔다. 그리고 고흥군청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그 축제의 후원자로 나서고 있었다. 고흥군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었다. 그러니까 소록도는 행정구역상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작은 새끼 사슴의 형상을 닮은 소록도는 녹동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육지에서 고작 배로 5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그곳에 가보질 못했다. 아니, 갈 엄두를 못 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곳에서 바로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이창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이 되기도 했소록도는 예전부터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왔다.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섬 소록도(小鹿島)는 나환자들의 애환에 얽힌 많은 사연들이 숨쉬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국립소록도 병원은 1916년 일제시대에 나환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자혜의원으로 출발했다.

한센병은 한 때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 불리며 천형의 질병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센병은 실제로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 심어진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소록도를 암울하고 음침하며 위험한 곳으로 생각한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모두들 꺼려하고 고개 돌리는 소록도의 비극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바로 이웃의 고흥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1천2백여명의 환자가 음성환자로 치료되어 소록도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반인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온 소록도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녹동청년회의소와 녹동JC 특우회가 힘을 합쳐 바다불꽃축제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거침없이 활활 타오르며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는 불처럼, 이번 축제로 인해 그동안 왜곡되었던 소록도의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시켜 보려는 것이 이 축제의 취지이다.

고흥군과 녹동JC는 이번 축제를 통해 칠흙 같이 어둡고 바위처럼 짓누르는 소록도의 무게를 엄청난 불꽃과 함께 날려 버려 소록도의 이미지를 밝고 화사하게 바꾸면서 소록도 일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녹동바다 불꽃축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록도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게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지역문화의 상품화로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축제가 소록도 주민들에게는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축제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살아 있는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느끼는 한바탕 잔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축제는 그 지역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그 축제에 참석하고 즐기려는 외부인들에게도 널리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축제, 개방적인 축제가 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축제에는 나도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할 생각이다.

외부 사람들은 소록도의 축제에 가서 흰 모래밭과 푸른 솔밭이 어우러진 바닷가와 속이 말갭게 비쳐 보이는 푸른 바다, 타오르는 불꽃같은 황금편백이나 실편백, 히말라야 삼나무 등이 잘 가꾸어져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보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주변 여기저기 배여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설움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소록도의 바다불꽃축제가 더욱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축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3) 왜 축제가 고을의 경쟁력인가?

“집에서 사무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애들은 잠깐 맡겨 놓으면 되니까 영화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세요.”

“실은 아직 휴학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에 지장이 된다면 한 학기를 휴학할 생각도 있습니다.”

2000년 2월 29일 9시 54분, 제 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3백 33명이 뽑혔다. 이번 영화제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상영장 관리부터 사무행정, 게스트 수송, 비디오 자료실, 홍보, 초청팀, 티켓팅, 차량관리, 자막팀을 비롯하여 20여개의 영화제 운영을 위한 각 분야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한타스틱국제영화제에 이어 내 고향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만사 제쳐놓고 봉사활동을 자원했지만, 사실은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영화제가 개최될 때는 나름대로 관심과 호의를 보이던 여론들이 ‘또 영화제야? 라든가, ‘조그만 땅 덩어리에 국제영화제가 또 필요한가?’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켜달라’는 신청자에서부터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하는 신청자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했다.

새 천년에 처음 열리는 영화제답게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새로운 영화의 문법을 살피려다는 취지 아래 이른바 대안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제껏 보아 온 주류영화들과는 영화미학이나 영상기술 면에서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영화들을 선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소비보다는 생산에 주목한다는 취지 아래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 지원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세계의 영상문화가 급격히 바뀌고 있음에 착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영화를 만들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디지털 영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새로운 영화제의 목적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영화제를 마칠 수 있었다. 처음 열리는 영화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기존의 영화제

와는 특화된 컨셉과 전략이 주요한 덕이었다. 특히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주의 영화사가 새롭게 조명되었던 점은 큰 수확이었다. 그동안 단절됐던 지역영화사 복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전주의 문화사는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화제 기획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또 하나의 국제영화제’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영화제’라는 차별화된 영화제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또한 외부적 성과 외에도 좀처럼 문화향유의 기회가 없었던 지역영화팬들에게는 새로운 영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점도 큰 성과중의 하나였다.

할리우드 영화에만 익숙해져있던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영화, 영화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스크린쿼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이번 영화제는 지역문화에의 새로운 자극과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워크숍이나 지역영화사, 디지털 삼인삼색 등을 통해 소비가 아닌 생산에 주목한 것이나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전주영화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기에 족했다. 기대 이상의 관객동원과 시민들의 관심, 영화매니아들의 열기가 모아졌던 올해 영화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영상문화의 기반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은 영화제가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전주국제영화제는 영상산업도시로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는 전주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온 전주시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시민 전체가 한 이웃처럼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전주시민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 갖게 된다면 전주는 절로 세계로 문을 열어두는 셈이다. 이처럼 알찬 축제는 한 고을을 세계로 열어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4) 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인가?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라 동네를 가로지르는 길옆에는 축대가 산을 떠받치고 있다. 처음 이 가게를 얻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축대가 퍽 마음에 들었다. 봄이라 풍성하게 자란 개나리가 축대를 반쯤 덮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시야가 막히긴 했지만 슈퍼마켓은 특 트인 한길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니 상관없었다.

여름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내다놓은 의자 등으로 축대 밑이 번잡해졌다. 파랗게 무성한 개나리 덩굴 아래 드러누워 있으면 신선이나 된 것처럼 뿌듯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한 날이면 사내들이 술추렴을 하느라 가게 매상이 오르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가게 앞에 있는 축대에 호의적이었고 그건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축대 위쪽에 야외수영장이 들어선다고 공사가 시작된 것은 작년 봄이다. 구청에서 구민복지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포크레인 이 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에야 겨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막 꽃잎이 지기 시작한 개나리들이 무참히 뽑혀나가고 덩 프트럭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시작했다. 약간 서운했지만 개나리 가지를 뒷마당에 꽂아놓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어차피 축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수영장을 완성하면 축대는 예전처럼 복구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수영장이 생기면 수영장을 들락거리는 손님들 때문에 여름에 대목을 맞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은 미리 가게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로 수영장 공사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구청에서 우리를 좋으라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 걸 보니 구청장이 좋은 사람인가 보네. 투표일에 휴가를 갔다온 정이네는 구청장을 자기 혼자서 뽑은 것처럼 히히덕거리기도 했다.

공사는 여름까지 진행되었고 가게 앞길은 엉망이 되었다. 산에서 굴러내려온 토사 때문에 비오는 날이면 진창이 되었고 함부로 쌓인 건축자재들로 늘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곧 끝나라라는 생각에 잠자코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꼬꼬치킨 양씨로부터 전해들었다.

“뭘 부도가 났다던가 예산이 없다던가 아무튼 수영장을 짓다가 말았다더구만. 저 위쪽은 난리도 아니라고. 구덩이도 다 파고 시멘트 작업까지 다 했었는데 뭐가 더 남았는가 모르겠다니까. 돈 생기면 다시 짓겠지 뭐.”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축대 쪽을 바라보면 마음이 심한해졌다. 설마 저렇게 해 놓고 그만 두겠어? 내 걱정을 듣고 남편은 제법 호기롭게 장담을 했다.

그러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될 무렵까지도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는 인부들 몇이 몰려와서 축대가 허물어진 부분에 지지대를 세우고 돌아갔다. 아닌 게 아니라 위쪽에는 시멘트 구조물이 완성되어 있고 아래에는 흙을 다 파낸 상태라 위험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느냐고 물어봤지만 인부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대신 공사 현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 비라도 많이 내리면 큰일이겠는데요. 수영장 구덩이에 물이 가득 들어차면 이걸로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인부들 주위에 몰려나와 있던 동네 사람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수영장에 물이 가득 고이면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나가 수영장이 기울어질 것이다.

파헤쳐진 축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슈퍼와 꼬꼬치킨, 정미용실은 물벼락을 맞고 저 아래 동네로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 아니 수영장이 무너지면 산도 무너지고 우리 동네 전부가 땅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서로 망연자실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우거지상을 하고 뭐하는 거야?”

어느새 남편이 옆에 와 서 있다. 나는 뼈뺏하게 턱을 치켜들어 맞은 편을 가르켰다.

“이따 세 시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모이기로 했어. 이번에 가서 담판을 짓자구. 우리 축대를 찾아야지. 아예 문 닫고 가자. 오늘 동네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전국문화원연합회 권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책임집필 윤재근, 삽화 고바우」 중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회 연변 조선족 전통음악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원 임직원을 비롯 관련 인사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을 방문 17일 저녁 연변 대우 호텔에서 제4회 연변 조선족 전통음악제를 연다. 이 행사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남북화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7월 17일 부터 5박 6일 동안 북경·연길·백두산 등을 답사하고 22일 귀국한다.

영등포문화원

제3회 영등포 단오한마당 축제

영등포문화원은 6월 15일 오후 9시 영등포 공원에서 주요 내·외빈과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영등포단오한마당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속놀이 한마당 △단오풍속도 그리기 대회 △단오축제 사진촬영대회 △장수효도 사진찍어드리기등으로 진행됐다. 현대문화에 밀려 맥이 끊기고 있는 우리의 전통명절을 계승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닌 이날 행사는 씨름·맷돌갈기·굴렁쇠 굴리기등 전통풍물이 재현돼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며 흥겹게 즐기는 신명난 잔치한마당이 됐다.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마포문화원  
관련기사 28-29면

부산강서문화원

인형극 초청공연

부산강서문화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극단 '징검다리'를 초청한 가운데 어린이 인형극 '은혜를 갚은 호랑이'를 공연했다.



문화가족 진주성 답사

부산강서문화원에서는 5월 17일 문화가족 85명을 대동해 진주성을 답사하며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당시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친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배웠다.

기장문화원

전통의례로 성년식 열어

기장문화원은 5월 20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원 강당에서 전통 의례로 '성년식'을 열었다.



### 사상문화원

#### 문화원 이전

사상문화원이 문화원을 이전했다.

△주소 : (우 : 617-702) 부산 사상구 잠전2동 138-8번지 사상구청내 8층

△전화 : (051) 316-9111  
(051) 310-4070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2002 팔공고려문화제전

대구 동구 팔공문화원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금호강 생태공원에서 '활동의 역사·겨레혼의 용틀임'이란 주제로 2002 팔공고려문화제전을 개최한다.

### 연수문화원

#### '해설이 있는 고전문학 외국어낭송회' 개최

연수문화원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해설이 있는 고전문학외국어 낭송회'를 6월 12일 원인재(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에서 문화관광부·한국문예진흥원·인천광역시·연수구청·새얼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하대 조병준 교수(인하대 불문학과)의 사회로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해설과 함께 각 언어별(영어·불어·중국어)로 시낭송이 이루어졌다.

영시 해설 및 낭송에서는 이교선 교수(인하대 영문학과)가 "느낌과 앎, 감정과 인식"을 주제로 강연했고,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 임제의 '청초 우거진 골에...' 등이 영어로 낭송됐다.

불시 해설 및 낭송은 이가림 교수(인하대 인문대학장)가 "프랑스 시에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한 후 김춘수의 '꽃', 박목월의 '나그네',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이 불어로 낭송됐다.

중시 해설 및 낭송은 백은희 교수(인하대 중문학과)의 '중국시의 멋과 맛'의 해설과 함께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김광균의 '설야', 노천명의 '사슴' 등이 중국어로 낭송되었다.

이 밖에 2002 월드컵 성공기원 길놀이와 조진숙(1999년 전주 대시습 무용부문 장원) 무용단의 소고춤과 살풀이가 공연되어 참가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 행사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악인 김경아에 의해 펼쳐진 판소리 '춘향가' 한마당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얼썩" 등 추임새를 넣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행사장에는 연수구 미술인회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에게 우수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인하대 조병준 교수의 사회로 약 200여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학생·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문화원이 고전문학의 가치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새로이 조명함으로써 한국문학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대전서구문화원

‘제4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개최

대전서구문화원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가운데 제4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주관해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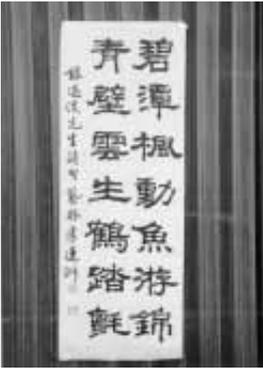
작품종목은 한국화(구상, 비구상), 양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서예는 (한글, 한문, 문인화)부문

이며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작품규격은 한국화, 양화는 30호(가로 90.9cm, 세로 72.7cm)이내, 서예는 2/3절지(가로 47cm, 세로 130cm) 이내다.

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각 문화원, 한국예총·미협대전지회, 시내화방 및 필방에서 배부되고, 작품접수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이뤄진다. 출품료는 1점당 30,000원이며 시상금은 전체대상 1명이 4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이 150만원이다.

입선작품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경기도지회

제5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

문화원 임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제고·회합 단결을 위한 ‘제5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동안 시흥시 동서증권 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제6회 문화유적학술조사

경기지회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동안 경기도내 31개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 경기향토사학회 회원, 시·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회원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고창일원지역을 대상으로 제6회 문화유적학술조사를 벌였다.



안산문화원

제11회 단오절 민속놀이 한마당 큰잔치

안산문화원은 6월 15일 화랑유원지 민속놀이장에서 제11회 단오절민속놀이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고양문화원

제15회 행주문화제

고양문화원은 6월 1일과 2일 양일간 행주산성일원에서 ‘제15회 행주문화제’를 열었다.

과천문화원

회암사지 발굴현장답사

과천문화원에서는 5월 1일 문화학교 문화박물관교실 상반기 유적지 견학일환으로 경기도 양주 소재 회암사지 발굴현장을 견학했다. 사적128호로 지정된 회암사지는 고려와 조선조 시대의 왕실의 지원을 받을 만큼 큰 사찰



이었다. 한편 깨끗이 정돈된 유물전시관의 유물전시와 영상자료는 회암사지 발굴의 진가를 드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 이천시

### 제16회 이천도자기 축제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오는 9월 6일부터 29일까지(24일간) 설봉공원엑스포단지에서 개최된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열려 대성공을 거뒀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앞으로 비엔날레로 개최되고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일반축제로 열린다. (관련기사 17면)

## 과천문화원

### 광주방문 답사단체 안내

광주지회는 제4회 비엔날레를 맞이해 3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여 동안 광주를 방문한 문화원등 문화유적답사단체들에게 △비엔날레 △무등산권 △가사문학관 △담양죽물박물관등을 안내했다.

## 연천문화원

### 최병수 신임 사무국장

연천문화원은 최근 송대진 사무국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그 후임에 최병수씨(49)를 선임했다.

## 삼척문화원

### 실직문화연구회 활발히 활동중

삼척문화원 부설 실직문화연구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3월 향토사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삼척문화원 부설로 설립된 실직문화연구회는 정운택 회장·김도현 간사를 비롯한 20명의 회원이 삼척과 관련된 수십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장 답사도 10여차례 해오고 있다.

실직문화연구회는 올해초 삼척시에 삼척 봉황산 도로 개설과 성씨 시조비 건립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 許미수 선생서거 32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삼척문화원은 지난 4월 26일 문화원 3층 강당에서 '미수 허목선생 서거 3백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제2회 관례·계례

삼척문화원은 5월 셋째주 월요일인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죽서루 경내에서 제2회 관례·계례를 거행했다.

## 영월문화원

### 제5회 전국충효학생 휘호대회

영월문화원은 6월 9일 영월학생체육관에서 '제5회 전국충효학생휘호대회'를 개최했다.

## 정선문화원

### 문화유적지 답사

△일시 : 4월 24(수)~26일(월)

△장소 : 제주문화권

△대상 : 문화가족 40명



### 가정의 달 '사랑의 편지쓰기'

△일시 : 5월 10일(금)

△장소 : 아리랑공원내  
△대상 : 정선군관내 초등학교 및 어머니(100명)

**가정의 달 어린이 인형극 'एं터리 도사와 삼색주머니' 공연**

△일시 : 5월 10일(금)  
△장소 : 문화예술회관 3층(공연장)  
△대상 : 정선군관내 초등학교 · 어린이집 · 어머니 (500명)

**철원문화원**

**박상기 신임 사무국장**

철원문화원은 최근 사무국장에 박상기씨를 임명했다.

**충주문화원**

**제28회 탄금대기 차지 총력안보 웅변대회**

충주문화원은 6월 22일 충청북도내 초·중·고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28회 탄금대기 차지 총력안보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보은문화원**

제25회 속리축전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뱃들공원 및 속리산일원에서 '열린 만남으로 펼치는 보은의 향기'를 주제로 펼쳐졌다.

**옥천문화원**

**100주년기념 제15회 지용제**

옥천문화원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옥천군 일원에서 정지용시인 탄생 100주년기념 제15회 지용제를 개최했다.

**진천문화원**

문화원 이전

진천문화원이 진천읍 읍내리에서 교성리로 문화원을 이전했다.

△주소 : (우 : 365-803)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08번지  
△전화 : (043) 533-2742, 2744  
△팩스 : (043) 533-7422

**증평문화원**

**제7회 증평문화예술의 날**

'제7회 증평문화예술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증평 행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

공주문화원은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8회에 걸쳐 문화원 강당에서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을 열었다.

**심필석 전각전**

△일시 : 6월 3~8일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 및 시민이 함께하는 FIFA 월드컵(한국:폴란드 전 중계 및 응원전)**

△일시 : 6월 4일 △장소 : 공주금강둔치공원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마당-무용마당**

△일시 : 6월 11일 △장소 : 문화원 강당

**공주 시민이 함께하는 FIFA 월드컵 (한국:포르투갈전 중계 및 응원전)**

△일시 : 6월 14일  
△장소 : 공주금강둔치공원

**윤보연 첼로 연주회**

△일시 : 6월 20일  
△장소 : 문화원 강당

## 공주문화예술인 화요미당 - 종합미당

△일시 : 6월 25일  
△장소 : 문화원 강당



### 서산문화원

#### 창립45주년 기념 및 신축원사 개원식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서산문화원이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산문화원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관내 주요 단체장과 시민등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45주년 기념 및 신축원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사물놀이·도살놀이·시·플롯·민요·부채춤·민요등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 한중문화교류 실시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서산문화원(원장 김현구)은 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요령성대련시위원회(주석 임경민)와 한중 양도시간의 문화교류 추진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도시의 문화·예술·사회 및 교육계 인사간의 방문과, 청소년들 간의 상호 방문 및 유학파견, 그리고 도시간의 학술 연구 및 공연 행사 교류 및 지원, 그 외에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협력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의 방문단은 서산문화원 이사로 구성되어 대련·북경·천진 3곳을 찾았다.

방문단은 대련시를 방문해 대련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설명을 듣는 한편 문화시책에 따른 양 지역간의 상호협조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여순 정협을 방문해 이화신 주석의 영접을 받았으며,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 日俄감옥을 참관하고 사당을 참배했다.

3면이 바다로 이뤄져 태안반도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요동반도는 온난한 기후에 수륙자원이 풍부해 세계 열강들이 탐내던 곳으로 지금은 도시가 산업화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방문해 대련시 정협과 맺어진 문화교류 협력과 관련 상호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양지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교류협정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하며 우리 지역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교류협정은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문화를 대내외에 선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우내문화원

#### 제20회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아우내문화원은 6월 11일과 12일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제20회 단오절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주문화원

‘관광전북·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전주문화원과 전주관광협회는 5월 22일 전주관광호텔 2층 풍남홀에서 제3회 학술심포지엄 ‘관광전북·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고창문화원

제26회 동백연(冬柏燕)

고창문화원은 지난 4월 22일 고창 선운사 도립공원에서 ‘제26회 동백연’을 개최했다.

장흥문화원

주소변경

(우 529-804)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255번지

영암문화원

2002년 영암어린이날 큰 잔치

2002년 영암어린이날 큰잔치가 5월 5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어린이 학부모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영암문화원과 전교조 영암지회가 공동주최하고 영암군과 교육청을 비롯한 25여 기관, 사회, 단체, 업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영암의 전통이 살아있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었다.

민속놀이 중심으로 치러진 예년과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이 많았다. 전통황토염색, 떡치기, 공기로켓 만들기, 새끼꼬기 등 재미와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마당이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장기를 마음껏 뽐낸 어울마당과 민속놀이 마당, 얼굴페인팅도 행사의 재미를 더했고, 합기도 용마체육관, 시목회(가훈 쓰기), 교사노래패 ‘못 갖춘마디’, 신학분교 풍물팀이 축하공연을 펼쳐 흥을 돋

왔다.

참가자 전원에게 피크닉 물통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었으며 디지털사진 촬영 및 열쇠고리 증정도 있었다. 해마다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새로움을 더해가는 어린이날 큰잔치가 어린이 유희시설과 프로그램이 변변치 않은 영암의 좋은 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문화원

제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영광문화원과 법성포 단오보존회는 지난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법성포 숲쟁이 공원에서 ‘2002 법성포 단오제 제3회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산청군

제2회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

제2회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산청에서 열렸다.

경주문화원

채무기 신임 사무국장

경주문화원은 신임 사무국장에 채무기씨(43)를 임명했다.

### 김천문화원

#### 문화학교 수강생 친선체육대회 개최

김천문화원은 5월 10일 김천 강변공원 잔디밭에서 제 5기 문화학교 수강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오전 체육경기에서는 서예반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OX 퀴즈왕 선발대회와 장기자랑 시간도 가졌다.



#### 문화원 임직원 중국문화탐방

김천문화원 임직원 일동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임직원 부동반으로 가진 이번 문화탐방기간동안 임직원들은 북경일원의 만리장성과 자금성·이화원 등을 방문,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안동문화원

#### 2002 봄 여성민속한마당

안동문화원은 지난 4월 27일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경내에서 '2002년 봄 여성민속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문경문화원

#### 제30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30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30분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문경시 주최 문경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과 시민·학생·문화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물반주로 민요를, 관현악 반주로 가곡 등을 선보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 청송문화원

#### 제17회 주왕산 수달래제

청송문화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립공원 주왕산 일원에서 주왕산 수달래제를 열었다.

### 경남지회

경남지회는 지난 4월 25일 경남 고성군 고성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전국향토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향토민요의 전승보존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인 대상은 경기지방의 상여소리를 부른 백지원씨(45세·마산)에게 돌아갔다.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

제40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제40회 옥포대첩기념제전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마산문화원

경주시 일원 문화탐방

마산문화원은 지난 5월 28일 회원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더불어 멋과 슬기와 풍유를 더하여 생활했다는 흔적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시 일원을 문화탐방했다. 이날 답자사 들은 감은사지, 이견대, 문무대왕 수증릉, 불국사, 황룡사지 분황사, 경주국립박물관을 탐방했다.



제2기 문화학교 발표공연회

마산문화원은 6월 8일(토) 오후 4시 마산올림픽 기념관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문화학교 발표공연회를 가졌다.

이날 공연 발표회는 현대음악·시조창·민요·댄스스포츠등 5개반, 무용·사물놀이등 250여명이 출연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뽐내었다.

한편 마산문화원은 제25회 마산시민의 날 '가고파 큰잔치'를 경축하고 서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2회 시민회호대회 수상작품 전시회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열었다.



진주문화원

김동렬 신임 문화원장

진주문화원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장에 김동렬씨(79)를 선임했다.

제1회 진주논개제

진주시와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제1회 진주논개제를 개최했다.

진해문화원

제3회 진해시민 회호대회 시상식

진해문화원은 4월 4일 진해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실시한 제3회 진해시민 회호대회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5월 6일 오전 11시 진해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우영자 교육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과 영예의 대상 수상자인 도희지씨등 총 76명의 입상자와 가족들, 문화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시했다.

2002년 경로효친 모범학생 표창

진해문화원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매년 실시하는 경로효친선양사업으로 경로효친의 모범학생들을 표창하는 '2002년 경로효친모범학생' 시상식을 지난 5월 18일(토) 오후 2시에 진해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김해문화원

#### 홍관표 신임문화원장

김해문화원은 최근 신임 문화원장에 홍관표 부원장을 선임했다.

### 양산문화원

#### 제1회 전국관설당서예대전 시상식

양산문화원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관설당서예대전 시상식을 가졌다.

### 의령문화원

#### 주부목화교실 개강

의령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17일(금) 군민회관2층 회의실에서 제3기 주부목화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원용 군수를 비롯해 문화원임원 및 수강생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3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반 목화교실의 지도교사는 심순덕(沈順德·진해) 여사가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3개월간 완전무료로 교습하게 된다. 문화원부설 목화교실은 그동안 50여명이 수료했으며 기초반 서예교실과 함께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은 물론 정서함양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향토문화가족작품전시회 및 가훈써드리기 행사

의령문화원에서는 제2회 의령군민의 날 및 제30회 의병제전기념문화예술행사를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했다. 올해에도 전군민 가훈·좌우명 갖기운동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유명서예가를 초빙해 현장에서 무료로 붓글씨도 써드리는 한편 그 자리에서 가훈이나 좌우명을 새로 지어드렸다. 특히 향토출신 저명서화가들이 협찬기증한 서예와 그림등 30여점의 명품이 전시되었을 뿐아니라 문화원부설 서예단체와 주부서예교실회원 작품도 40여점 전시되어 주목을 받게 됐다. 그리고 의령문화회원의 시회전을 비롯해 사진, 분재와 난, 꽃꽂이, 미술, 전통도자기, 서각작품등 모두 350여점의 작품도 전시돼 어느해보다도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했다.



### 남해문화원

#### 제6회 남해문화원의 날

남해문화원은 5월 20일 이충무공 전몰유허와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제6회 남해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하동군

#### 제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제7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화개면 차시배지 일원과 진교면 막사밭 도요지에서 개최됐다.

# 조선 왕궁의 궁궐문 및 성문



정문(正門): 광화문(光化門)



중문(中門): 흥례문(興禮門)

## 경복궁(景福宮)

### 정문(正門): 광화문(光化門)

- 광화문은 ‘광피사표화급만방(光被四表化及萬方)’에서 光化를 따온 문구로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임
- 궁궐 정문의 화(化)는 백성을 교화(教化)하여 감화(感化)하기 위하여 화(化)자를 씀.

※예 : 창덕궁 돈화문(敦化門), 창경궁 흥화문(弘化門), 덕수궁 인화문(仁化門), 경희궁 흥화문(興化門)

### 중문(中門): 흥례문(興禮門)

- 고종의 경복궁 중창이전에는 『弘禮門』, 중창 이후에는 『興禮門』이라 기록.
- 흥례문(弘禮門)은 청고종 건륭(乾隆)황제(1736~1795)이름이 홍력(弘歷)으로 황제의 이름자를 피하기 위하여 흥례문(弘禮門)의 흥(弘)을 흥(興)으로 변경하여 흥례문(興禮門)으로 바뀌었다고 함
- 중문의 예(禮)는 조선이 예를 숭상하는 나라로 도성의 남대문을 숭례문(崇禮門)이라 한 것과 같은 뜻임.

### 전문(殿門): 근정문(勤政門)

- 근정문은 정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으로 중앙에 어도

를 두고 좌우에 협문을 두었음.

- 임금의 즉위와 왕비의 책봉,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 문·무과 시험, 병정의 훈련, 중죄인의 추국(推鞠)등 여러 행사가 근정문에서 이루어졌음.
- 정도전(鄭道傳)이 근정전이라 이름지을 때 『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此必然之理也』라 아뢰었다.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廢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정치의 큰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임금의 부지런함이다...> 즉 근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이치라하여 붙여진 명칭임.
- 궁궐 정전의 정문으로 통칭, 정전의 명칭을 문 이름으로 사용함.  
※ 근정전→근정문, 인정전→인정문, 중화전→중화문

### 동문(東門) : 건춘문(建春文)

- 건춘문은 경복궁의 동문으로 왕실의 宗臣, 王族 및 尙宮등의 통용문임.
- 建春文의 春은 음양오행에서 동쪽을 뜻하고 동문에 붙여지며, 동문 인접에는 세자가 생활하는 동궁(東宮)이 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위치를 뜻함.

### 서문(西門) : 영추문(迎秋門)

- 궁궐의 서측 정문으로 弘文館, 校書館등 궁내 관사에 근무하던 관료들의 통용문일 뿐 아니라 궁인(宮人)이 출입하고 시신(屍身)이 나가는 문임.
- 영추문의 추(秋)는 음양오행에서 서쪽을 뜻하고 서문에 붙여지며 결실을 거두는 위치를 의미하여 서쪽에 위치.

### 북문(北門) : 신무문(神武門)

- 경복궁의 북측 정문으로 항상 닫아 두었다가 왕이 후원에서 무예 또는 소요 행차시 출입하는 문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열었음
- 북쪽의 현무(玄武)를 상징함.



전문(殿門) : 근정문(勤政門)



동문(東門) : 건춘문(建春文)



서문(西門) : 영추문(迎秋門)



북문(北門) : 신무문(神武門)



정문 : 돈화문(敦化門)



중문 : 진선문(進善門)



전문 : 인정문(仁政門)



정문 : 홍화문(弘化門)



전문 : 명정문(明政門)

## 창덕궁(昌德宮)

### 정문 : 돈화문(敦化門)

- 조선 태종 12년(1412)에 세워진 창덕궁의 정문.
- 조선 선조 40년(1607)에 재건.

### 중문 : 진선문(進善門)

- 창덕궁 인정전 외행각 정문.
- 일제시대에 없어진 것을 1999년 복원.

### 전문 : 인정문(仁政門)

- 조선 태종때 세워진 창덕궁 인정전의 정문.
- 영조 21년(1745) 중건.

## 창경궁(昌慶宮)

### 정문 : 홍화문(弘化門)

-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은 조선 성종 15년(1484)에 걸립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
- 현재 건물은 광해군 8년(1616)에 다시 중건.

### 전문 : 명정문(明政門)

- 창경궁의 중문이며 치조공간으로 동향인 명정전의 정문으로 조선 성종14년(1483)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
- 광해군 8년(1616)에 명전전과 함께 중건한 것으로 추정.
- ※ 건물 이름 가운데 글자가 '정(政)' 인 경우 정전이나 편전을 나타냄.

## 덕수궁(德壽宮)

### 정문 : 대한문(大漢門)

- 원래 정전인 중화전의 전면에 있었으나 후에 동쪽으로 옮겨 덕수궁의 정문(원래 덕수궁의 정문 : 인화문)으로 사용하고 있으

- 며, 조선말 광무 8년(1904)에 소실되자 광무 10년(1906)에 재건
- 덕수궁의 정문인 인화문(仁化門)은 궁궐 정문 앞에 넓은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추정.
- 원래 대안문(大安門)이라 칭하였다가 재건 후 고종황제가 대한문으로 개칭한 것이며, 현판은 당시 조정의 중신인 남정철(南廷哲)이 썼다고 함.

### 전문 : 중화문(中和門)

- 중화전의 전문인 중화문은 조선말 광무 6년(1902)에 지었으나 1904년 불에 타버려 현재 건물은 광무 10년(1906) 다시 지은 건물임.

## 경희궁(慶熙宮)

### 정문 : 흥화문(興化門)

- 일제 강점기인 1910년 경희궁을 헐고 그 터에 경성중학교를 건립(흥화문은 그대로 보존).
- 1932년 박문사(博文寺)에 이축되어 산문(山門)이 되었다가 현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정문으로 사용.
- 서울시에서는 일제에 의해 소실된 경희궁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흥화문을 새로 복원.

## 도성(都城)의 성문

〈개요〉

도성의 사대문은 오상(五常 : 仁義禮智信) 가운데 한자씩 따서 지었음.

※ 북대문은 지(智)자와 뜻이 통하는 정(靖)자를 넣어서 숙정문(肅靖門)이라 함.

### 남대문(南大門) : 승례문(崇禮門)

- 승례문은 서울성곽의 정남문으로 속칭 남대문이라 함.
- 태조 7년(1398)에 건립, 세종 30년(1448)에 개축.



정문 : 대한문(大漢門)



전문 : 중화문(中和門)



정문 : 흥화문(興化門)



남대문(南大門) : 승례문(崇禮門)



동대문(東大門) :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西大門) : 돈의문(敦義門)



북대문(北大門) : 숙정문(肅靖門)

- 오행설에 의한 남쪽으로 예(禮)를 나타냄.
- 정남에 위치하여 사람의 출입이 가장 많고 중국, 일본등 외국사절이 출입하는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가장 웅대한 문으로 건축함.
- 숭례문의 현판글씨는 다른 곳과 달리 중서인 것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풍수설에 의한.

### 동대문(東大門) : 흥인지문(興仁之門)

- 흥인지문은 서울성곽의 정동문으로 속칭 동대문이라 함.
- 태조 5년(1396)에 건립하고, 문종 원년(1451)에 개건, 고종 5년(1866)에 개축.
- 오행설에 의한 동쪽으로 인(仁)을 나타냄.
- 문이름에 갈지(之)를 첨가하여 동쪽의 좌청룡의 맥을 높이려고 하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함.

### 서대문(西大門) : 돈의문(敦義門)

- 돈의문은 서울성곽의 정서문으로 속칭 서대문이라 함.
- 도성을 창축할 때 건립되고 숙종시대에 재건한 듯하나 1915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되어 지금은 형태를 알 수 없음.
- 오행설에 의한 서쪽으로 의(義)를 나타냄.

### 북대문(北大門) : 숙정문(肅靖門)

- 숙정문은 서울성곽의 정북문으로 속칭 북문이라 함.
- 태종 5년(1405)에 건립.
- 오행설에 의한 북쪽으로 지(智)를 나타냄.
- 숙정문은 창건한지 8년 만인 태종 13년(1413)에 풍수사상에 의해 문을 막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폐쇄하였음.
- 숙정문은 연산군 10년(1504)에 조금 동쪽으로 이견하였는데 이때 석문만 세우고 문루는 건축하지 아니한 듯하다. 그러나 1976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서울성곽을 복원할 때 창건 당시의 제도에 의하여 문루를 건축하고 숙정문이란 편액을 걸었음.

● 음양오행사상의 의미와 문명칭 ●

구 분	중 앙	동 문	서 문	남문(정문)	북문
경복궁	勤政殿	建春門	迎秋門	光化門	神武門
창덕궁	仁政殿		창덕궁	敦化門	
창경궁	明政殿		창경궁	弘化門	
덕수궁	中和殿		덕수궁	仁化門	
경희궁			경희궁	興化門	
도성4대문	景福宮	興仁之門	敦義門	崇禮門	肅靖門
4계절		春(봄)	秋(가을)	夏(여름)	冬(겨울)
五行	土	木	金	火	水
五常	信	仁	義	禮	智
四神		靑龍	白虎	朱雀	玄武
색상	황색	청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이 번호의 '오픈북' 란은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에서 창간한 「문화재 기능의 맥」에서 발췌했다. 이 협회에 서는 과거의 「옛술림」이라는 제목의 간행물을 발간해 왔었으나 중도에 폐간하고 이번에 재창간한 것이 「문화재 기능의 맥」이다. 전통문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편집자 주)



## 의령문화 의령문화원

향토문화예술의 종합정보지인 「의령문화」 제10호를 발행했다. 2002년도 들어 첫번째인 이번호에는 그동안 추진한 중요사업과 문화행사 등 화보와 함께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등 문화강좌에 갈음할 전문가의 칼럼과 원로학자분들의 특별기고문, 저명문인의 문예작품, 발굴향토사료 회원문단과 문화마당, 잊혀진타령을 비롯한 속담과 수수께끼 등 오랜기간 동안 향토를 순방하면서 수집채록한 구전문학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책의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 일두 정여창 선생의 생애와 사문부식고찰 함양문화원

정여창(鄭汝昌 : 1450~1504, 호 일두)은 함양출신으로서 동방이학(東方理學)의 거봉으로 동국 18현의 한사람이다.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5경에 통달하고 역행실천하는 학자로서 무오사화때에 유배되고, 갑자사화에 부관참시당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그와 관련된 실기(實記)·유집(遺集)·속집(續集)의 3권을 통합하여 단일권으로 국역하여 발간함으로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간 사람사상(士林思想)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 함양의 뿌리(2) 함양누정지(상)·(하) 함양문화원

함양문화원에서는 마을마다 자생한 집성촌에 세워졌던 재실과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에 세워졌던 정자와 현판 등 소중한 문화재들이 마모되고 소실되는 것과 한문작품들에 대한 독해와 감상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3년간에 걸쳐 향교, 서원, 누각, 정자, 재실들을 현물촬영하고 기문을 수집하여 원문과 번역문으로 엮어 책을 만들었다. <상>권에는 향교(2곳), 서원(9곳), 누각(6곳), 정자(58곳)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재실(165곳)이 수록되어 있다.



## 포천향교지 포천향교

포천향교는 고려 명종3년(1173년)에 창건되어 고려·조선조를 거쳐 939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6·25 전란으로 전해오던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던 포천향교(전교 최중규)에서는 전란 이후의 자료를 모아 「포천향교지」를 발간하였다. 제1편은 '향교통사'로 한국의 유교약사·성현약전과 성학원류(聖學源流)·성균관약사·석존대제·성균관 중요사적비·향교의 연원과 변천사·성균관 유도회 연혁과 조직현황·경기도 향교재단, 제2편은 포천향교사, 제3편은 부록으로 엮여졌다.



##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춘천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이 기본적인 역사서에 기록된 춘천의 향토사와 문화재·인물·사회문화상을 고대부터 중세·근대·현대까지 시대별로 엮는 향토자료집 발간계획 중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춘천」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중에서 태조부터 철종까지, 그리고 「고순종실록」의 고종까지(1392~1909)의 강원도 전반에 관한 일반사료와 춘천지역에 관련된 사료를 발췌하여 번역문으로 엮은 조선시대의 춘천역사자료집이다. 사료의 배열을 편년순으로 하여 각 왕조별로 정리하면서 날자별로 서기연표로 표기했다.



**강원의 미(美) 제2집**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원은 1993년 10월 저자 유용태(강원고미술연합회장)씨가 12년동안 강원일보와 월간태백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강원의 미 제1집」을 발간한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강원의 미 제2집」은 같은 저자가 그후 8년간에 걸쳐 수집·정리한 자료들을 최은주씨의 컬러사진을 곁들여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제2집에서는 '제1부 강원의 민속품(강원일보연재) '강원명반' 등 107점, '제2부 강원의 민예품(월간태백 연재)' 22점, '제3부 특집보도(강원도민일보)' 3건등을 수록하고 있다.



**공주의 두레(공주의 전통예능 채록조사 보고서·2)** 공주문화원

근자에 학계에서 기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주의 두레」는 공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두레를 통하여 협동정신과 공동체의식을 발휘했던 자치제도의 효시적 역할을 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주의 두레」는 공주시청의 이걸재씨가 20여년간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채록·정리한 것으로서 '두레이야기', '공주 두레의 현황(자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공주의 지리지·읍지** 공주문화원

공주는 통일신라 이후 '천년 관아의 고장' 이라고 불리워왔으나 백제이후의 공주역사연구는 미약한 형편이었다. 최근 공주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와 근·현대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주지역의 문화자원활용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공주의 지리지·읍지」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충청도읍지」, 「대동지지」, 「공산지」, 「호서읍지」(1871) 등의 자료에서 발췌·번역하였다.



**온양·아산 마을사(제2권)**(제3권으로 출판될 예정)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에서는 2000년도에 「온양·아산 마을사(제1권)」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제2권을 발간하였다. 제1권에서는 염치읍·송악면·도고면·신창면을 수록하였으며, 제2권에서는 둔포면·선장면·탕정면·배방면·영인면·인주면·음봉면의 입향유래, 인구현황, 자연경관, 마을변천과정, 지명, 전설, 전통놀이, 집단행사 및 인물, 종교현황, 마을의 특성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1997~2001년까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내용들이다. 온양시의 마을사는 제3권으로 출간될 것이라고 한다.



**보령의 야생화**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에서는 금년 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하여 보령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의 자태를 계절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야생화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진집은 리을수(대천사진관 사장)씨가 15년전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조사·촬영한 것으로서 환경부지정 특정야생식물과 한국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 위기의 식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봄에 피는 꽃'·'여름에 피는 꽃'·'가을에 피는 꽃'·'야생란' 등으로 구분하여 총 393종의 야생화를 꽃이름, 과명, 학명, 분포지, 개화기, 결실기 등으로 소개했다.



## 벼골의 구비문학(향토문화자료 제19호) 김제문화원

김제지역은 전북 농도의 중심지답게 광활한 평야지대의 곡창으로서 옛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민요·민담·설화·전설들이 많았으나 그것을 전할만한 사람들은 고장을 떠났거나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김제문화원에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비전승을 하루라도 더 늦기전에 채집·수록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박순호(원광대)교수에 조사를 의뢰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10인의 지역원로(70~80세 이상)들로부터 구술된 내용을 구연된 방언 그대로 표기하면서 50건의 이야기를 정리·수록하고 있다.



## 보림사 장흥문화원

보림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의 가지산에 있는 사찰로서 동양 3보림(인도·중국·한국)의 하나로 불리워지고 있는 선종(禪宗)의 제일가람이다. 신라 경덕왕 18년(759년)에 원표스님에 의하여 창건되고 그 뒤(780~935년)에 보조선사 채징이 이 절에 옮겨오면서 선문(禪門)의 중심도량이 된 곳이다. 1950년 6·25 전란으로 잿더미가 되었으나 다행이도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비롯하여 3층석탑·석등 등의 국보와 보물들이 남아있어 보림사를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주사랑·전주마음 전주문화원

전주문화원과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02 제19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 모음집이 출간되었다. 매년 주제를 바꿔가며 개최되었던 이번 대회는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친절·질서·청결을 주제로 하였다. 덕진공원에서 열린 이번 글짓기 대회에는 3천여명이 참석하여 1,5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각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입선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 초계(草溪) 대광대(竹廣大)탈놀이 합천문화원

현재의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德谷面) 울지리(栗旨里·밤마리)는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초계군(草溪郡)에서 합천군으로 소속이 바뀐 곳이다. 19세기까지 밤마리(栗旨)지역에서 대광대(오광대)패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 사라지고 말았다. 저자 이영기(초계 대광대 보존위원회 위원장)씨는 이지역의 기층문화를 대변하였던 '초계 대광대 탈놀이'를 복원·재현하여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0여년동안 조사·연구하여 합천문화원총서 제32호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 남양주 사찰의 주련(柱聯)과 의미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원에서는 남양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봉선사·묘적사·보광사·봉영사·불암사·수종사·흥국사·견성사·내원암·석천암등 11곳의 전통사찰의 문화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11집'으로 「남양주 사찰의 주련과 의미」를 발간하였다. 사찰의 전각·당우·재실 등에 장식되는 주련(柱聯)은 불(佛)·보살의 중심사상을 시문(詩文)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주존(主尊)의 의미와 신행체계(信行體系)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구리시의 민속문화(구리시 민속조사 보고서) 구리문화원

오늘날의 도시들은 현대화에 따라 시가지가 급격히 팽창하고, 특히 새로운 주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박이 원주민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의 정체성 확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구리시에도 많은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서 존속하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숙지하고 있는 연령층의 노령화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조사 작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 성동구의 전래민요(성동민속대관3) 성동문화원

성동문화원에서는 민간에 구전되고 생활로 전승되는 민속문화를 연차적으로 조사·정리하여 발간하고 있는 '성동민속대관3'으로 구전하는 민요를 조사·채록하여 「성동구의 전래민요」를 엮어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민요를 가사는 노래 부르는 대로 받아쓰고, 노래는 녹음하여 악보로 채보하고, 해설을 곁들여 성동지역의 사정을 설명하는 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게 정리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지역 및 조사 개관, 민요의 개관, 중앙지역·동부지역·서부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 서울 탐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제2책' 「서울 탐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조사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탐골공원 성역화사업에 대한 구제발굴 조사로서 조선시대 초기 사찰인 원각사(圓覺寺)터의 유구존재여부 및 문화재 확인과 보존의 차원에서 2001년도에 실시된 학술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다. 탐골공원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민족적 성지이며, 원각사지 10층 석탑 및 대원각사비 등 조선시대 초기의 최대 평지사찰이자 왕실사찰인 원각사가 위치했던 곳이다.



## 문화전통논집(제9집) 경성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이 논문집에는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했던 '제8회 한국학 학술심포지엄(성재 허전 학문의 형성과 전개 IV)에서 발표되었던 김철범의 許性齊 著述考略, 한상규의 小訥 盧相稷의 書堂教育論, 이성혜의 我石 金鍾大의 書藝術論과 그 밖에 '부산지역 항일학생운동의 성격' (강대민), '전통생활 속의 꽃 문화에 관한 연구' (김영숙), '길선주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동광), '조선시대 사당의 환경심리적 해석' (최지희), '한국 색동의 색채미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현상' (박옥련·조윤정)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 무드리향토사료집 II(무드리 10호) 광주 북구문화원

광주 북구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향토사학자와 마을 원로들의 구술과 학문적 고증을 거쳐 관내 곳곳을 누비고 도시에 편입된 옛마을을 찾아 조상의 삶의 흔적을 발굴하여 마을별로 마을사, 지명유래, 문화재 및 문화유적등을 조사·정리하여 「무드리 향토사료집 II」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광주시 북구의 28개 동·단위로 각각의 마을 74개처의 마을향토사가 수록되어 있다.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4개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6-9111)
- 금정문화원(051-581-9071~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 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關係者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關係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 편집후기

6월은 너무 짧았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쫓다 보니 한달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며 개최국으로서 16강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국민 모두가 소원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8강에 대한 꿈을 꿴습니다. 마술처럼 8강도 이뤄졌습니다. 다시 국민들은 4강을 원했습니다. 90분의 본게임과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에 이르러 우리의 골키퍼가 상대방의 공을 막아내고 한골을 더 넣자 TV화면에는 ‘4강’이란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도 나도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다시 국민들은, 실은 저도 그랬지만, 독일을 꺾고 요코하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못내 아쉬웠습니다. 텅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망각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선전에서는 ‘16강에만 들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소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점점 그것들을 누르고 비운 뒤의 잡플 처럼 욕심이 자라난 것입니다. 물론 목표가 높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전의 소박함과 간절함은 어디 다 갔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목표를 달성케한 원동력이었는데 말이죠. 이번 글에 실린 정민 교수님의 글에 보면 작은 쌀도독인 아버지는 평생 무탈하게 먹고 살았지만 더 큰 욕심을 낸 아들 도독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소박함과 간절함을 잃지않는 ‘작은 악마’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畝)

## 정기구독안내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향토문화논문·향토문화자료 공모전

**주최: 전국문화원연합회**

**후원: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생신문화연구원**

## 취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 각지의 향토 문화 자료를 발굴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향토사가의 연구의 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향 토문화논문 및 향토문화자료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 니다.

## 공모요강

**연구분야:** 지역의 역사, 민속 등 향토문화 전반

### 공모부문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1) 사료 2) 민속자료 3) 고고미술사 자 료(문화유적) 등

※ 자료부분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순 보고서도 무방함

※ 제출자의 응모부문 명사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응모기간:** 2002. 1. 1 ~ 9. 30(마감일 소인유효)

**발표 및 시상식:** 2002년 10월경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 발표, 11월경 시상식

## 응모자격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일반인, 향토사가, 대학생 및 대학 원생(석사학위자 및 박사학위과정자 포함),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소속 향토사가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 및 대학(교)에서 전임 강사이상(겸임, 객원, 외래교수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으며, 기 대상수상자는 수상 연도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응모할 수 없음. 위 규정에 저촉될 경우 응모 및 수상자격 박탈 및 상금 회수

## 심사기준

가. 향토문화논문 부문 : 현장조사 및 자료발굴의 성실성, 주제선정 및 소화능력, 체제 및 논리, 기존연구동향 및 성과에 대한 점검여부, 향토문화 기여도 및 성과

나. 향토문화자료 부문 : 발굴 및 새자료, 사료(자료)의 해석 및 의미부여, 체제 및 논리, 향토문화 연구기여도 및 성과

## 시상내역

가. 향토문화논문부문 : 대상1편(국무총리상) 300만원 / 최 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상2편(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국사편찬위원장상) 각150만원 / 장려상4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100만원

나. 향토문화자료부문 : 최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 우수상2편(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국사 편찬위원장상) 각100만원 / 장려상3편(전국문화원연합 회장상) 각50만원

## 제출서류

- 응모작 : 한글 화일로 작성한 디스켓 및 출력물 제출
- 추천서 : 해당지역 문화원장(시·도지회장 포함)의 추천서
- 이력서 : 응모자의 학·경력 이 기재된 이력서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응모작은 접수하지 않으며, 입상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선으로 처리함

- 국내외에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했거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했을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했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기재 했을 경우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주소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화 : (02)704-2311 팩스 : (02)704-2377
- 문의 : 전명찬 문화정보과장 / mcchun@kccf.or.kr